

2013~2016
연례보고서

군인에게 존엄을!



ANNUAL REPORT.



추모글

姑 윤 일병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다음 유가족의 입장문으로 머리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윤 일병 1주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입장

보랏빛 피멍이 든 채로 비명에 간 윤 일병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스물한 살, 그 찬란한 생을 두고 윤 일병이 서둘러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윤 일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군의 다양한 시도를 목도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도 윤 일병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몸통을 알지 못합니다. 당초 군 당국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성추행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임한 지 7일 된 초임 검찰관에게 사건을 맡겼으며, 사건 현장을 목격할 유력한 증인의 증언조차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와 시민법정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준 시민들과 모든 국민의 관심이 있었기에 관할법원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열정 어린 감시에도 불구하고 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의 공판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우리 형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실은 묻은 채 중형 선고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늬만 중형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유가족이 원한 것은 사형도 중형도 아닙니다. 형량보다는 윤 일병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형량이 가볍더라도 질식사라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의 불운’과 ‘폭행에 의한 살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에는 군의 부실 수사와 끼워 맞추기식 군사재판이 있으며 또 다른 윤 일병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되면서 윤 일병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이 제대로 선고가 될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가족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1주기를 맞은 지금도 우리의 아들 윤 일병의 죽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주기를 맞아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엄정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는 윤 일병의 1주기를 지낼 수 없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가족이 비명에 간 아들의 죽음을 기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 중 다수는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일병을 서둘러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명에 간 윤 일병을 다시 한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유가족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만 합니다. 윤 일병의 명 자국과 피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른 모든 윤 일병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 일병이 두 눈을 감고 고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가족이 윤 일병의 1주기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2015. 4. 6.

고 윤승주 육군일병 유가족 일동

군인에게 존엄을!

Dignity for Soldiers!

들어가며

군인권과 함께하는 사람들

● 고문단

고 문 (2014~)	고 문 (2016~)	고 문 (2014~)
		
<p>김 지 형</p>	<p>박 경 서</p>	<p>전 수 안</p>
<p>前 대법관</p>	<p>초대 대한민국 UN 인권대사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現 UN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장 現 한국인권재단 고문 現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p>	<p>前 대법관</p>
<p>現 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p>	<p>前 이화여대 평화연구소장 前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前 통일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원장 前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前 WCC 아시아 정책위 의장 前 WCC 아시아 국장 前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現 사단법인 선 고문</p>
<p>前 해군 법무관 前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前 사법연수원 교수 前 서울고법, 특허법원 부장판사 前 대법원장 비서실장 前 한국신문윤리위원장 前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前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前 원광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해외 법관연수(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p>	<p>前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前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대전고등법원 판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前 광주지방법원 법원장</p>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11~)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대표변호사

現 강원도 동해시 고문변호사

前 육군 제9군단 검찰관

前 육군 제3군단 군판사(강원 인제)

前 육군 제2군단 법무참모

前 육군 제2군단 국가배상심의위원장

前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무팀장

예비역 육군 소령



운영위원('14~)

공복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대표

故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

(육군 훈련소 뇌수막염 사망사건 피해자)

군 의료체계 개선 기여



운영위원('14~)

김대희

응급의학과 전문의

現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

前 국군홍천병원 군의관

前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前 인천시의료원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장

前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예비역 육군 대위



운영위원('09~)

김인숙

민들레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위원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감사

前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위원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운영위원('14~)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現 CBS 객원해설위원
現 홍사단 정책자문위원

前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前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前 공군본부 정책발전 자문위원
前 육군본부 동원정책 자문위원
前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前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前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前 제 16 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전문위원
제 14·15·16 대 국회의원 보좌관



운영위원('12~)

박인혜

(사)인천여성의전화 이사

現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前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사장
前 성공회대 외래교수
前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前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前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前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前 경찰청 여성아동청소년 정책자문공동위원장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위원('11~)

성주목

변호사

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現 기업안전법센터(BSLC) 대표

前 육군 제 50 사단 검찰관
前 육군 제 1 군사령부 군판사(강원 원주)
前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前 법무법인 다임 대표변호사

예비역 육군 소령



운영위원('16~)

안미자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육군 28 사단 집단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군대폭력, 군형사법 개혁 기여



운영위원('09~)

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前 육군법무관
- 前 육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 前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책자문위원
- 前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 前 법무부 여성아동피해자 인권가디언스
- 前 성인권교육협의회 민간위원

예비역 육군 대위



운영위원('09~'17.03.)

이유정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現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 現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前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前 제 15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 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
- 前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위원
- 前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前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감사
- 前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운영위원('09~)

정상덕

원불교 교무

- 現 원불교 백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 前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前 원불교 영등포교당 주임교무
- 前 (사)평화의 친구들 상임이사
- 前 사형제 폐지 범종교인연합 공동대표
- 前 원불교청년회 사무총장
- 前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前 운영위원('12~'14)

진선미

제 19 대 국회의원

- 前 군인권센터 감사('09~'12)
- 前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 前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위원
- 前 국방부 자문위원
-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감사
- 前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감사
- 前 이안법률사무소 변호사



운영위원('16~)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B.A.) Political Science, the University of Rochest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Ph.D.) Political Scie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운영위원('12~)

허남주

서울신문 사업단장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비상임이사
現 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위원

前 서울신문 신성장사업국장
前 서울신문 특입논설위원
前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前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前 운영위원('09~'16)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前 한국법철학회 총무이사
前 한국법사회학회 총무이사
前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前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前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前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前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
前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소장('09~)

임태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 수상

前 동성애자인권연대 초대 대표
前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대표
前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위원
前 법무부장관 위촉 교정시민움부즈만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前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강원대학교 강사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비정부기구학 석사

● 감사



감사('09~)

정정훈

변호사

前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前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사람' 변호사



감사('16~)

조영인

세무사

녹조근정포장
국립세무대학 졸업
강남세무서 영세납세지 지원단

● 정책위원회



前 정책위원('09~'15.02.)

김정식

베트남스토리 대표

前 간디학교 교사
前 국가인권위 연구용역사업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공동연구원
前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강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 교재개발]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원



정책위원('12~)

김철효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책전문위원

(Ph.D) Sociology, the University of Sydney,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박사과정 수료)
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IOM 이민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前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난민담당 간사
前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담당



前 정책위원('12~'14)

김효민

변호사

現 금융감독원
前 육군 법무관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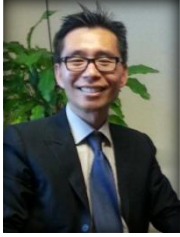


정책위원('09~)

신민영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인
제17대 국회 노회찬 의원실 보좌관



정책위원('12~)

우종길

국제변호사



정책위원('12~)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現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무관
現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책자문위원
(LL.M.) Law School, the University of Harvar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정책위원('12~)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책위원('09~)

진범수

정신과 전문의

現 한국법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現 평화군사법연구회, 제노사이드연구회 회원

現 미래신경정신과 원장
現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신체정신의학회 정회원

前 법제처 법제연구담당관
前 국민대학교 부교수
前 전남대학교 부교수

前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및 심리부검 위원
前 용인 정신병원 진료과장
前 안양시 정신보건센터장
前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前 오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장
前 재단법인 진실의힘 자문위원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15~)

김숙경

前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14. 5. ~'15. 11.)



실행위원('16~)

이상면

군인권 카드 홍보 담당

現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위원회 위원
前 서울 YMCA 법률소비자상담 책임간사
前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근상담원
前 기독교민회 총무

前 대한민국 육군 중사
(이명박 前 대통령 상관모욕죄 기소 피해자)

● 인턴



인턴 11기(특별)

Richard M. Roberts
주한 美 대사관 부문장관
(’13~’15)

前 Professor, the Asian and European Divisions,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D.) Psychology, the University of Memph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인턴 12기
진준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인턴 13기
이의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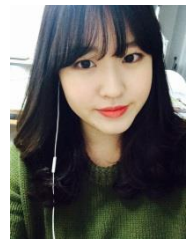
인턴 14기
심건욱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재학



인턴 15기
서인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인권법학



인턴 16기
권은비

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



인턴 17기
김철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회학

● 사무국



간사(’13.~’14.02.)

송현민

인권정책 및 교육 담당
군인권센터 인턴 10기
서울시, [인권강사양성과정]담당
국어국문학, 노어노문학
총무(’16.02.~’16.06.)



간사(’16.03~08.)

방경록

인권정책 및 인권상담 담당
군인권센터 인턴 18기
국민대학교 법학과



진혜료

재정
(사)아름다운생명사랑 간사(’07~’14)
굿네이버스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
생활복지사(’06~’07)



간사(’16.08.~’17.03.)

김형남

인권정책 및 인권상담 담당
군인권센터 인턴 19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태준

재정홍보 간사
(’16.07.~’17.08.)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소 장 소 개

임태훈 LIM, TAEHOON



수 상

연도	수상 내용
2014.12.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28 회 인권상

저 서

출판연도	출판물명	글쓴이	펴낸곳
2014.12.18.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김종대, 임태훈 공저	나무와숲

약 력

시기	내역
1998~2002	동성애자인권연대 초대 대표
1999~2001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00~2001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집행위원
2000~2002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
2001~2002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02~2005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대표
2004~2005	Amnesty International 병역거부 양심수 선정
2004~2006	한국인권행동 운영위원
2006~2008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위원
2006~2008	법무부장관 위촉 교정시민음부즈만
2008~2009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 팀장
2008~201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1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료체계 인권실태조사] 자문위원
2014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추진기획단 단원
2015~2016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2016~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2009~	군인권센터 소장

교육

연도	교육내용	비고
2011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NGO 와 법의지배"	수료
2013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 석사	졸업
2014	서울특별시 인권강사 양성 기본과정	수료
2015	미국 국무부 초청 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	이수
2016	프랑스 외무부 초청 Programme d'invitation des personnalités d'avenir	이수

주요 활동

활동기간	내역
1999 ~ 2003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강사 (7, 8, 9, 10, 12 기)
1999 ~ 2003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캠프 강사
2001 ~ 2002	미국 ASTRAEA 재단 사회변혁기금 [HOT-LINE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2002	한국인권재단 인권실천사업- [여름동성애자 인권캠프] 총책임자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2006	국회의원 노회찬 의원실, 국정감사 [구금시설 내 인권실태조사] 책임연구원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기획 및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교재 개발]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2006 ~ 2007	초·중등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직무연수) 기획 및 강사 국방부, 육·해·공군 인권과 소속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
2007	Lim, T.H. (2008) "Global Spotlight on Republic of Korea", <i>2008 Report of the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sia</i> , Edited by Forum-Asia, pp.151-159.
201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육군 2 군지사 소속 장병 대상 인권교육 강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대상 순회 인권교육 강사
	영등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대상 인권교육 강사
	육군 107 항공대 소속 장병 대상 인권교육 강사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
2013	강남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
2014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군 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원
2015	국회 국방위원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옴부즈만법 연구] 책임연구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군 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원

목 차

추모글	4
들어가며	6
군인권과 함께하는 사람들	6
소 장 소 개	14
조직도	18
총론	20
제작과정	20
3개년 총괄평가	20
현황보고	21
시설	21
인원	22
주요활동	26
사무국 소식	26
워크샵	26
자격취득변동	26
수상소식	27
군인권상담	28
상담일반	28
특별사건	30
1) 2013년 육군 뇌종양 사망 피해자 故 신성민 상병사건 지원	30
2) 2013년 육군 노 소령 성추행 사건 피해자 故 오 대위 사건 폭로 및 사건 법률 지원.....	31
3)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폭로 및 사건 법률 지원.....	32
4) 2015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군하사 집단가혹행위 사건.....	37
5) 2016년 국군청평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의료사고.....	38
6) 2016년 육군 제6사단 GP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39
군인권사업	41
1. 군인권교육사업	41
2. 인권교육활동	46

3. 군인권정책사업	47
1)토론회	47
2)제도개선	47
3)국제연대	49
4)연구사업	55
5)거버넌스	55
4. 군인권상담사업	57
아미콜 상담 전자체계화	58
추념사업	59
군인권법 제·개정 과정.....	59
5. 군인권홍보사업	60
1)언론대응	60
2)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	63
3) 2014년 군인권센터 5주년 후원의밤 &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69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수상	64
5) 의무경찰 집회투입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감시단 운동.....	69
재정보고	71
후원금	71
1) 원불교 재비모금액 기금전달식	71
2) 온라인 기부.....	7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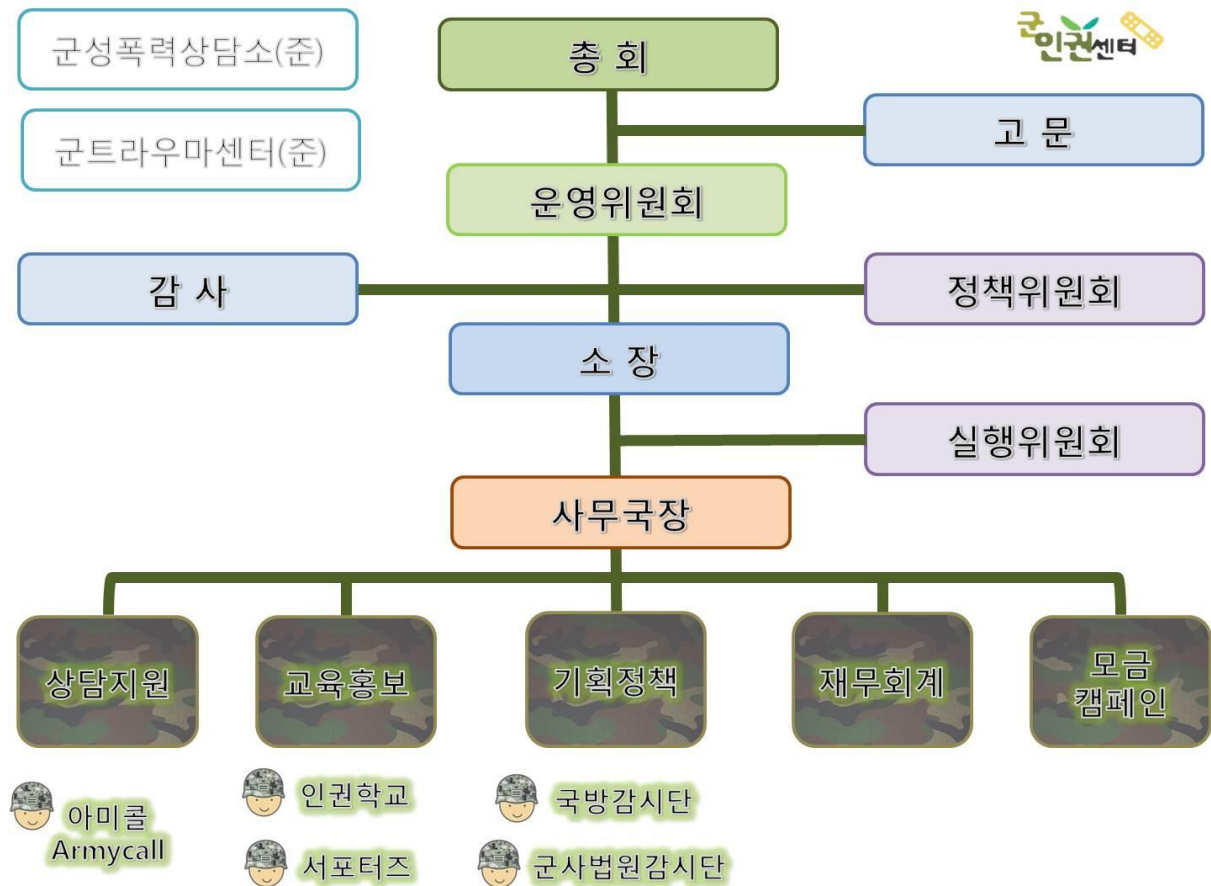


Figure 1 2016년 개편 팀 조직도

회원의 구성

군인권센터는 2013년 정기총회에서 기존 초대 정관을 개정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자 ‘총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6 개정정관 제15조에 따라 총회는 군인권센터 최고의결기구이며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정회원의 자격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분들로 구성합니다. 한편 후원금만 납부하는 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합니다. 정회원 자격 취득은 1)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합니다.

정회원	후원회원	후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원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금 정기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금 부정기납부 •해피빈, 다음희망해, 클라우드펀딩 등 포함

센터의 직제 및 편제

센터 임원은 고문, 대표, 운영위원, 소장, 감사로 구성됩니다. 사무국 직제는 내규에 따라 소장, 사무국장, 활동가(팀장, 간사, 담당), 인턴, 자원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인턴은 근로기간에 따라 유급 혹은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사무국은 편제는 팀제로 운영하며 2015년까지 상담팀, 교육팀, 정책팀, 재정홍보팀이 있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는 상담팀 산하에 군인권 침해신고 전화 ‘아미콜 ArmyCALL’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상담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지원간사’를 두었고, 3월 2일부터는 야간 상담(주중 18~21시)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상담담당’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지원팀’을 신설하고, 상담팀은 ‘상담지원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팀은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캠프 및 인권학교 등의 진행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내부 직원 교육 및 OT, 자료집 발간 등을 담당합니다. 끝으로 정책팀은 ‘국제연대담당’을 두어 국제연대활동을 모색하는 한편, ‘군인권감시단(군사법원, 국방예산, 국방정책)’을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인권친화적 입법 운동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홍보팀은 2016년 분리되었습니다. 재정팀 산하에 ‘펀딩모금담당’을 두어 성폭력상담소 설립 등을 위한 모금을 강화하였습니다. 홍보팀은 캠페인팀으로 개칭하고 그 산하에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단’이 꾸려져 자원활동가로서 소정의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군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캠페인팀은 군인권카드 배포 사업 등 홍보업무와 회원관리를 전담합니다. 2016년 상반기부터는 과거 이상면 前 육군 중사님이 홍보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확장

군인권센터는 정관 제 8 장 제 35 조를 근거로 하여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및 부설 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6월 오 대위가 상관인 노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후 사망한 이래 군인권센터는 군 조직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군대가 외부와 차단된 사회라는 특성, 계급이라는 견고한 위계와 상명하복의 원리에 따른 조직문화, 극심한 남초집단이자 독성 남성성(toxic masculinity)이 자칫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 성폭력을 특화한 전문가가 남녀 군인, 병사-간부 등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론

제작과정

본 통합보고서는 2012년 연례보고서 제작 이후 잠시 중단되었던 연례보고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놓쳤던 2013, 2014, 2015, 2016년의 활동을 모두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센터 설립 5주년 특별 군인권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이었으나 발행 시기상 4개년 통합 보고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집필 기준은 2017년이지만 발간일을 고려하여 그 이후 사건이나 변화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2013년, 2014년은 군인권에서 특히 중요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역량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기록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연례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이를 함께 다루어서 그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일부 중요하지만 미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계속 개정을 통해 모두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 집단구타 및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故 윤승주 일병의 죽음 이후 본 센터의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분들이 군인에 대해 보다 깊고 넓은 이해를 얻길 바라며 우리나라 군대의 인권 향상을 소망해 봅니다. 군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 날을 위해 군인권센터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개년 총괄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은 모두 군 인권의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목숨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피병 취급, 직속 상관의 성폭력, 전우들의 구타 및 고문 등 그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계급과 성도 전 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는 캄캄한 동굴 속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도움으로 민간군이 함께하는 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이런 활동에서 군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아쉽게도 여러 미비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군대를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피해자가 거대한 군 조직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펼친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안보분야에서의 인권이 걸어 온 발자취에 대한 연구와 기록, 반성에 소홀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미래 제복입은 시민들의 인권과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현황보고

시설

보금자리

2015년 4월 센터 사무국은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3층 시절에 마침표를 찍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2층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촌 로터리 근처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과거 영등포 시절보다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20평 남짓한 공간으로 이한열기념관 전시실(3층) 아래에 있습니다. 종종 기자회견 등을 위해 기념관 전시실을 대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유리로 구분된 소장 집무실, 사무국 사무공간 및 회의(응접)공간, 화장실이 있으며 2016년부터는 ArmyCALL 상담원 상담 부스를 구획해 두었습니다. 現 사무실은 기존에 언론 ‘고발뉴스’가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아미콜 자원상담가 운영비는 아름다운재단 사업기금에서 충당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사무국 전경



이한열기념관(2층) 전경



2014년 이사 초기



2016년 아미콜 상담실 리모델링

비품

사무국 비품은 총 컴퓨터 6대와 상담용 컴퓨터 5대, 와이드 모니터 5대와 일반 모니터 4대가 있으며 모두 Microsoft Office와 한글을 회원님들의 기부로 구비하였습니다. Microsoft Office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업을 Techsoup에서 하고 있으나 센터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임).

기타 비품으로는 회의용 책상 1개, 업무용 책상 5개, 상담용 책상 3개가 있으며, 의자 17개, 냉장고 1대, 난방기 1대, 소파 1개 등이 있습니다. 기름 난방기는 2015년 11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또, 행정용 전화기 6대가 있으며, 소형 복합기 1대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원님의 기부로 미니 프로젝터와 팩스 기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기부품이 2014년 사무국 이사 때 여러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위한 앰프 스피커와 유선 마이크도 각 1개씩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미콜 ArmyCALL’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상담전용 전화 회선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더 원활한 상담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담일지 등의 보관 및 보안을 위한 보안장치도 추가로 구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무실 주변 위험인물 접근을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초 공군 하사 집단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가해자 측이 사무실에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와 면담을 강요하는 등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

현재 센터는 2014년부터 두 분의 전직 대법관과 2016년부터 초대 대한민국 UN인권대사를 고문으로 모시고 있으며, 11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감사 및 임태훈 소장으로 구성된 임원진과 6명의 정책위원, 2명의 실행위원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법조계와 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인권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진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팀장, 간사, 담당, 인턴의 직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인턴은 무급과 유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차세대 군 인권 전문가,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인권감시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6명의 전문상담원들이 자원활동가로서 군인권 침해 신고에 대한 상담을 전담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간략한 소개 및 인사이드입니다. 다만, 2016년 총회 인준 사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임 원 진

고문

센터는 2014년 故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두 분의 前 대법관을 고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수안 고문께서는 여성 대법관으로서 주요한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로 활동하기 보다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사회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지형 고문께서는 노동법에 대한 전문지

식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 활동하셨으며, 『노동법해설(1993)』, 『근로기준법해설(1998)』 등 단행본과 논문을 작성하셨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새롭게 한 분을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경서 고문께서는 초대 대한민국 UN인권대사로 활동하셨으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힘쓰셨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십니다. 『인권대사가 체험한 한반도와 아시아(2002)』, 『국제정치경제론(2004)』, 『인권이란 무엇인가(2012)』,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2012)』 등의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이전부터 군인권센터 교육 활동에 여러 도움을 주셨는데 2016년부터 고문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운영위원

센터는 법률, 의료,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군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이경환, 이유정, 정상덕, 홍성수 운영위원께서는 센터 설립 초기부터 함께하셔서 군 인권 옹호에 전념해오고 계십니다. 2011년부터 강석민, 성주목 운영위원께서 합류하시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군 복무 중 얻은 피해와 상처 등에 대한 유공자신청 등 보훈 관련 업무에 대해 법률 조언과 자문을 담당해주셨습니다. 김인숙, 이경환 운영위원께서는 법률 자문과 더불어 군 성폭력 사건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유정 운영위원께서는 육군본부와의 ‘아미콜 ArmyCALL’ 상표권 분쟁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덕 운영위원께서도 종교인으로서 센터의 활동을 지지하여 주셨습니다. 홍성수 운영위원께서는 최근까지 영국에 교수로 파견되어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박인혜, 허남주 운영위원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박인혜 운영위원께서는 군성폭력상담소 등의 센터 발전 계획에 도움을 주셨고, 허남주 운영위원께서는 언론 대응 등을 안내해주셨습니다. 이후 2014년 故 윤 일병 사망사건을 지원하면서 김종대 前 디펜스21 편집장, 김대희 인도주의의료실천의사협의회 前 사무국장께서 합류하여 주셨습니다. 김종대 운영위원께서는 각종 국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과 탁월한 강의로 인권의식 향상 활동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김대희 운영위원은 넘쳐나는 군 의료사고 및 부상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더하여 2015년 故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이신 공복순,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이신 안미자 운영위원께서 새로운 식구로 참여하시어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한편, 진선미 前 운영위원께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3년과 2014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국정감사 등에서 군인권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회 임기 중 군형법 제92조의6 폐기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최종건 교수가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 타 위 원 회

정책위원

센터는 군인권 정책연구 등 사회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교육, 사회학, 법학, 국제인권, 의학 등 여러 전문분야에 걸쳐 정책위원을 위촉하여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신민영(변호사), 진범수(정신과 전문의) 위원께서는 센터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정철효(사회학박사), 우종길(국제공무원), 이경수(의과대 교수), 이재승(법학 교수) 정책위원께서 전문분야

에 대한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한편, 김효민 前 정책위원은 2012년부터 활동하시다가 2014년 이직하게 되면서 정책위원직을 부득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식 초대 정책위원 역시 직장 이동 등으로 2015년부터는 정책위원직 수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실행위원

센터는 김숙경 활동가를 2013년 12월 육군 오 대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故 오 대위 사망사건을 지원하는 계기로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셨고, 2015년 12월부터는 다시 성폭력 사건 담당 실행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편 20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한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이상면 예비역 육군 중사를 캠페인 담당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인권카드 배포사업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 무 국

센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활동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군인권 증진, 보호, 감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5년 기록하지 않은 시민운동 상황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와 소외되고 억압된 인권의 영역을 조명한 여러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숙경 前 사무국장은 2013년 실행위원으로 위촉되어 육군 오 대령 성추행으로 자살한 故 오 대위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2014년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5년 각종 프로젝트 사업 및 연구사업을 총괄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김숙경 초대 사무국장은 여성운동에 깊은 관심을 해왔으며 뛰어난 법률적 안목으로 여러 사건에 대한 인권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시민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 진행하였고 예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총무

센터는 2015년에는 재정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를 두었습니다. 이주연 총무는 잠깐이지만 센터의 재정현황을 정리하는 기초를 닦았고, 이후 본업으로 복귀하여 5년지기 후원회원 감사 기념품인 ‘장서인’ 제작 등을 맡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후 함께하게 된 진혜로 총무는 사회 복지사로서 복지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오랜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재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인턴

군대가 청년의 주제인 만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센터에 대한 여러 인턴 활동가의 꾸준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부문정관으로 부임한 리처드 로버츠(Richard M. Roberts) 씨가 특별인턴(11기)으로 짧게나마 군인권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진준기 인턴(12기)은 사무국 보조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었습니다. 또 이의재(13기), 심건욱(14기) 인턴 역시 소정의 활동기간 동안 사무국 및 상담 업무보조에 힘썼습니다. 서인혁 인턴은 사무국 업무 및 상담을 총괄 보조하였고, 2015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업무 종료 후에도 최차규 前 참모총장의 부정부패비리 혐의에 대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군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이후 합류한 권은비 인턴은 국방전문 잡지 ‘디펜스21’의 기자로 활동하다 2014년 故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설치된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본 센터 인턴으

로 활동하며 전공분야를 살려 각종 교육사업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전역 직후 센터 인턴으로 지원한 김철선 인턴이 활동했습니다. 특히, 김철선 인턴은 2015년 사업 마무리 등 일손이 크게 부족했던 상황에서 매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김철선 인턴은 센터의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관하는 ‘NGO와 법’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겨울에는 방경록 인턴이 뛰어난 사건 파악 능력과 능률적 업무 수행으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활동하였고, 2016년부터는 상담지원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 대학생군인권서포터즈

2014년부터 군인권센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1기 서포터즈는 총 17분이 지원해 주셨고, 전 기간 활동한 8명에게 수료증을 발급했습니다. 1기 주요활동으로는 ‘3.8 여성의 날’ 행사장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위한 모금운동이 있습니다.

**군인권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모집

활동기간 2015년 9월 1일 - 2016년 2월 28일

모집기간	2015년 8월 3일(월) - 2015년 8월 16일(일)
선발기간	2015년 8월 17일(월) - 2015년 8월 20일(목)
최종발표	2015년 8월 21일(금)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모집인원	00명
모집유형	군인권 기자·홍보팀 / 캠페인팀
제출서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접수는 e-mail로만 가능합니다. (mhrk119@gmail.com)
선발자OT	2015년 8월 27일 16:00 - 18:00 (이현열 기념관 3층)
특 전 1	활동 내용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시간 부여, 위촉장 증정
특 전 2	인턴십 지원시 가산점 부여

주관 인권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그리고 2기 서포터즈는 1기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및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대에서 11월 군인권 토크쇼를 마련하여 대중교육을 하였고, 6월 퀴어퍼레이드, 4월과 11월 서울대 및 고려대 인권주간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캠페인 기간에는 1기 서포터즈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고, 2016년 1월 군인권 세미나를 통해 군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더불어 군인권카드 배포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2015년 4월 논산, 춘천 훈련소에서 육군 입대병사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서울지방 병무청 앞에서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아미콜 상담카드를 배포하는 등 군 인권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환기와 군 인권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기는 2016년 2월 총 6명이 최종적으로 수료증을 수령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추가적으로 2014년 군인권센터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주관하는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프로그램을 신청하여 2명의 자원활동가가 소정의 기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김대현, 정동일 봉사자가 활동해 주었으며, 김대현 봉사자는 2015년 워크샵에도 참석하여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에 충남대 이한별 님이 자원봉사자로 도와주셨습니다.

주요활동

사무국 소식

워크샵

1) 2013년 워크샵(3개년 계획 수립)

2013년 연초 1박 2일 여성미래센터 5층에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센터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이었고, 2013년 사업(안)과 예산(안) 그리고 군 전문 성폭력 상담소 개소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임태훈 소장과 사무국원 조규석, 김보미, 송현민, 여율이 참석했습니다.

2) 2015년 워크샵(제주도, 3개년 계획 수립)

2015년 1월 21일 수요일에서 23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임태훈 소장, 김숙경 사무국장, 조한준 간사, 서인혁, 심건욱 인턴, 김대현 봉사자, 심누리 서포터즈 외 공군 병사 1명과 해군 대위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편, 임태훈 소장과 김숙경 국장은 중간에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故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 방청을 위해 잠시 상경했습니다. 이번 워크샵 기간 동안 4.3 항쟁 유적지, 다량쉬오름 등을 방문했으며 운전은 조한준 간사가 도맡았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센터 발전 3개년 계획 수립이었으며 군인권서포터즈 활동, 군성폭력상담소 개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중앙정부(법무부, 국방부 등) 이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자격취득변동

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반려

2013년 센터는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부여하는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취득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2012년 6월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연례보고서, 정관, 재정보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3년 NGO사무국의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나 2013년 5월 NGO위원회 사전 회의에서 본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민간단체로는 참여연대, 유엔인권정책연구소 등등이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일반협의지위 단체는 굿네이버스가 유일합니다).

2) VMS 자원봉사기관 자격 취득

센터는 2015년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 활동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시간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는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 2기 수료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등록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자원봉사시간을 인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365자원봉사 제도는 미리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참석 명단 및 활동 사진 등을 증빙하여야 해서 거짓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해 드리고자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자격을 취득·갱신하였습니다.

수상소식

- 1) 2014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위원장 표창)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4.12.10. 보도

- 2) 2014 재단법인 동천 제5회 태평양 인권상 수상



출처: 한국NGO신문, 2014.12.14. 보도

- 3) 20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수상(소장 임태훈)



사진출처: 베리타스, 2014.12.10.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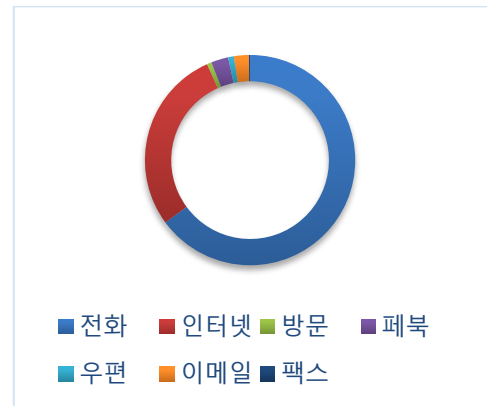
군인권상담

상담일반

본 상담 보고서는 자료기록 방식의 한계상 회계연도 2015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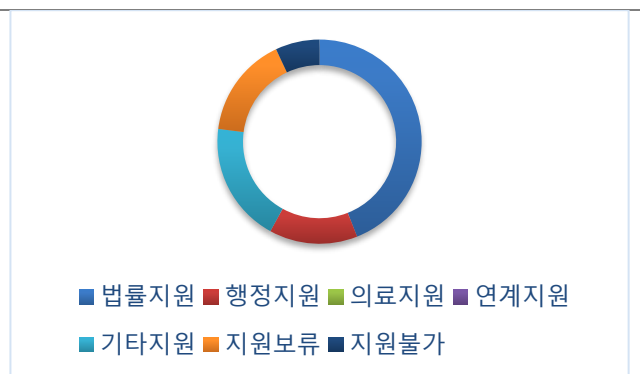
1) 2015년 상담접수 통계(접수된 사건 수로 상담 횟수와 다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계
전화	103	96	94	75	368
인터넷	69	46	38	8	161
방문	1	2	1	0	4
페이스북	5	2	4	4	15
우편	2	1	2	0	5
이메일	6	2	2	3	13
팩스	0	0	1	0	1
계	186	149	142	90	567



2) 2015년 상담지원 통계(접수된 사건의 수로 구한 값이므로 총 상담 횟수와 다름)

해결	비율	미결	비율
법률지원	44%	지원불가	6%
행정지원	14%	연락두절	51%
의료지원	0%	영역부적합	7%
연계지원	0%	방법없음	34%
기타지원	18%	상담철회	0%
지원보류	16%	기타불가	0%



3) 관계분석(기준-상대)

내담자 - 피해자		병사 외 피해자 - 가해자		병사인 피해자 - 가해자	
본인	41.80%	동료	1.19%	동료	6.40%
가족	49.73%	선임	0.00%	선임	30.23%
친척	3.55%	상관	76.19%	상관	36.05%
제 3 자	4.10%	국가기관	14.29%	국가기관	12.79%
불명	0.82%	불명	7.14%	군의원*	5.81%
		기타	1.19%	불명	8.14%
				기타	0.58%

참고. 환자와의 관계이면서 상급자이므로 군의관의 경우를 별도로 산출함.

4) 침해권리별 상담통계(중복선택 허용)

구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인격권(행복)	65	44	37	31	177
생명권/신체자유	56	45	30	28	159
의사표현/양심	10	6	3	0	19
평등권	17	15	5	9	46
청구권	36	15	11	10	72
사회/문화/경제	24	17	14	9	64
건강/진료/의료	44	23	17	8	92
사생활/통신	16	6	2	2	26
기타	9	8	4	6	27
계	277	179	123	103	682

5) 피해유형별 상담통계(중복선택 허용)

구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구타/가혹행위	68	44	39	28	179
성폭력	8	5	6	5	24
의료사고/진료방해	45	23	18	17	103
보훈/유공자 문제	25	12	9	9	55
사생활 침해	7	6	2	2	17
자살/복무부적합	24	10	6	7	47
부당한 대우/처벌	32	14	10	6	62
차별	15	15	6	9	45
기타	26	23	16	17	82
계	250	152	112	100	614

6) 인구 분포(전환복무자 등은 군의 해당 계급으로 치환함)

A. 피해자 계급 분포(2015년)

대분류	병					보충/예비*		간부		전역자 (예비군)	불명	기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불명	상근	사복	부사관	장교				불명
소분류	13	60	23	15	35	2	4	32	23	22	47	286	5
명													
소계				152				77		47	286	5	

※ 기타: 민간인, 군(공)무원 등등

참고. 사회복지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병역의 한 종류이지만 복무특성상 계급에서 별도로 분리함.

B. 피해자 소속 분포(2015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소방	예비군	사회복무	입영대상 (민간인)	불명	계
소속	54	4	7	2	4	0	2	2	3	489	567

참고. 한 사건에 다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수와 피-가해자 수는 불일치함.

특별사건

1) 2013년 육군 뇌종양 사망 피해자 故 신성민 상병 사건 지원

2013년 6월 19일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기로 유족이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센터와 유족은 1)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 조문 및 사과, 2) 국방부 장관의 장병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재발 방지 약속, 3) 소·중대장 등 사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 신성민 상병은 연초부터 심한 두통으로 부대 의무대를 찾았으나 정작 두통약과 소화제만 처방 받았습니니다. 신 상병은 휴가를 나와서야 민간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병원과 민간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다가 6월 17일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군 의료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가 비난을 받고 하루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사진출처: 군인권센터, 오마이뉴스(2013.06.25. 보도)

장례 합의 관련 글

2013년 6월 21일 군 복무 중에 뇌종양 판정을 받아 투병 끝에 사망한 고 신성민 상병의 영결식이 유가족과 친지, 지인들과 김광진 국회 국방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11사단장(葬)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군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장례가 어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결식은 부대 각급 간부들이 참석함은 물론 군악대와 의장대가 동원되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박창화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과 친구들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있었던 영결식부터 인천 화장장, 벽제의 군 임시 봉안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하며 고 신 상병의 마지막을 헛되지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 당국의 책임성 있는 사과 및 조치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무실로 들어와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던 간사는 경악을 표했습니다. 두 시간 전, 그러니까 군의 임시 봉안소에 고 신 상병의 유골함을 봉안하던 그때 국방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밝힌 입장에는 오로지 '군은 규정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변명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고 신 상병의 치료 및 투병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유골이 채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버리는 국방부의 행태는 가히 실망스럽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도 지키지 않는 군이 과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 '군인권센터 공식 페이스북 부고알림'에서

2) 2013년 육군 노 소령 성추행 사건 피해자 故 오 대위 사건 폭로 및 사건 법률 지원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던 오혜란 대위는 2013년 10월 직속 상관이었던 노승원 소령(38)에게서 성관계를 강요 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이를 거부한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 근무를 시켰습니다. 결국 오 대위는 노 소령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고통을 호소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한겨레 (2015.07.16. 보도)

1심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의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를 비호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심 고등군사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

도록 하는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립공주병원과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전문가 7명에게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바탕으로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군사재판 최초로 심리부검을 증거로 채택하게 하여 오 대위님의 사망과 노 소령의 가해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육군본부는 2014년 3월 26일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를 거쳐 오 대위에 대해 순직으로 최종 결정했고, 2014년 4월 8일 오혜란 대위님은 국립대전현충원 장교4묘역에 안장, 영면에 드셨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2014.03.24.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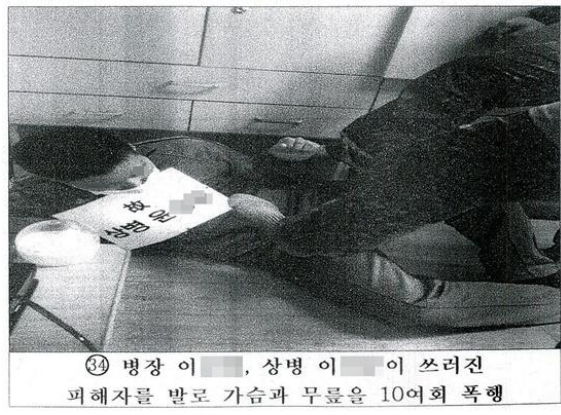
3)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폭로 및 사건 법률 지원

군인권센터는 2014년 7월 31일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사망한 윤승주 일병 사건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망하게 되는 4월 6일까지 순전히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선임들은 행동이 어눌하다며 가혹행위를 하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게 된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 똑거린다며 또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며 추행했고, 치약 한 통 먹이기,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각종 고문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간부 유경수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가해진 폭행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최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사인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보고서는 기도폐쇄가 냉동만두를 취식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으나 2014년 8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한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이 주범 이찬희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구타 당한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하였고, 물을 마시려다가 주저앉아 소변을 본 후 의식을 소실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뇌진탕(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고, 질식 이전에 외상이라는 선행사인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4월 6일 집단구타 이후 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왜곡이며 연천군보건의료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상태로 보건의료원에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군 검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살인죄 기소를 기피했었습니다.



㉔ 병장 이 []가 피해자에게 바닥에 떨어진 냉동식품을 활아먹게 강요함



㉕ 병장 이 [], 상병 이 []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가슴과 무릎을 10여회 폭행



군사법원 재판정 내 가해자들 모습



‘심폐소생’으로 둔갑시켰던 구타흔

한편,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찬희 병장으로부터 "뇌사 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만 기소했고, 사인 또한 질식사로 왜곡하며 수사 전반을 축소·은폐한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까지 있는데도 군 검찰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킨 점을 지적했고, 따라서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6년 육군 제28사단에서 간부와 병사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윤 일병 사건 동일 수사요원들이 또 다시 축소·은폐 시도하려던 정황을 포착, 폭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4일 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건 재판관할을 제28사단에서 제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5일 한 장관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고, 제28사단장 이순광 소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애초 군은 4월 21일 제28사단 포병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보직해임하고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과성명에서 한 장관은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16명에 대한 징계에 더하여 사단장을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했고,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도 부실수사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건 다음날 4월 8일 오전 사건 전모를 백낙중 조사본부장에 의해 대면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역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고는 장관, 차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사보좌관, 합참의장·차장, 대변인까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책임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4월 11~28일 ‘전군 부대정밀진단’을 지시, 육군에서만 3,900여 건의

가혹행위를 적발했던 사실도 미리 보고받고도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후에야 이 사실을 시민에게 공표했습니다.

2014년 8월 27일 군인권센터는 3차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알린 제보자 김 일병이 애초부터 장례식에 참석을 희망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싶어 했음에도 부대에서 이를 막았던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은 "김 일병은 28사단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전화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고, 유가족과 어떻게 만날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상담관은 '유족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나아가 핵심목격자이자 증인인 제보자가 재판에 출석하는데 별다른 노력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증인)불출석에 대한 검찰관의 설명이나 확인이 없으면 군 판사나 심판관이 공식적인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약속이나 한 듯 이 과정을 생략해 버렸"던 것입니다. 나아가 김 일병은 가해자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입실해 있어 폭행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김 일병과 강 일병은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검찰은 "김 일병의 부친이 김 일병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해 증인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김 일병이 윤 일병에게 보내는 편지

윤승주 씨에게!

윤승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저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윤승주 씨를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윤승주 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남은 평생을 두고 반성하고 느끼겠습니다.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의 몸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졸병으로서 가해병사들에게 '그만 좀 하라'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제게 그들을 막을 육체적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지원관에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로서만 그치지 말고 애원이라도, 아니면 맞아 죽을 각오로 가혹행위가 중단되도록 달려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윤승주 씨를 보내던 날 윤승주 씨의 장례식장을 가려했지만 입실환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저의 죄송함을 표현하기 위해, 망연자실해 하고 계실 ○○씨 부모님과 만남을 수차례 원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윤승주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소속된 중대가 훈련에 가고 없어 저의 식사 배급이 원활치 않았던 때 ○○씨가 저를 위해 PX에서 음식을 사다가 같이 먹자고 했던 기억, 그리고 본인의 힘든 고통 속에서도 환자인 제게 베풀었던 의무병 본연의 모습,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은 기억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윤승주 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김 일병 드림¹

¹ 제보자는 참여연대로부터 2014 의인상, 호루라기재단에서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8일 윤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상고심에서 주범 이찬희 병장(28)만 살인죄를 인정, 최종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폭행에 가담한 하 병장(24), 지 상병(23), 이 상병(23)은 폭행치사죄로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2014년 10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 수용중이던 2015년 2~8월 사이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목을 조르거나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찌르는 등 폭행, 가혹행위 하여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성기를 보여주며 희롱하고 옷을 벗긴 채로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소변을 보게 하는 고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2014년 8월 8일 오후 7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윤 일병과 군 인권 피해자를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제 당시 사진입니다. 추모제에는 군의문사 피해 유가족을 포함, 고 노우빈 훈련병 어머니, 고 오혜란 대위 고모부, 고 신승민 상병 누님 등 시민 여러분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추모제는 원불교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2014.08.08.자 보도



사진출처: 노컷뉴스, 2014.08.08.자 보도



사진출처: 시사저널, 2014.08.14.자 보도

**윤 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 일병들을 위한
추모제**

군인권센터는
억울하게 죽은 윤 일병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 -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용산 국방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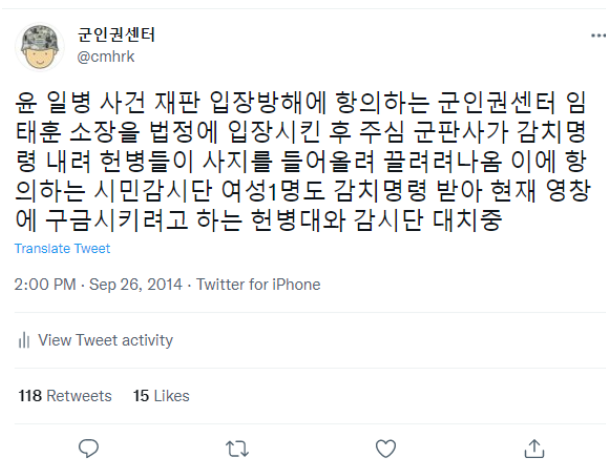
*국화는 개인별로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

2014. 9. 30. 화
19:30 대한문 앞

추모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추모의 밤을 주변에 널리 홍보하고 적극 참여합니다.
추모위원 참가비(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를 납부합니다.
모집기간 : 2014. 9. 28(일)까지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계좌 : 국민은행 794001-04-124930 예금주 임태훈(군인권공동행동)
입금확인은 02-733-7119 또는 hr4army@gmail.com으로 문의바랍니다.
추모위원은 추모의 밤 공동주최 명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추모위원 참가비와 후원비는 추모의 밤 사업과 후속 대응활동에 사용됩니다.
주관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 문의 사무국 02-723-4250 hr4army@gmail.com

한편,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군 지휘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군사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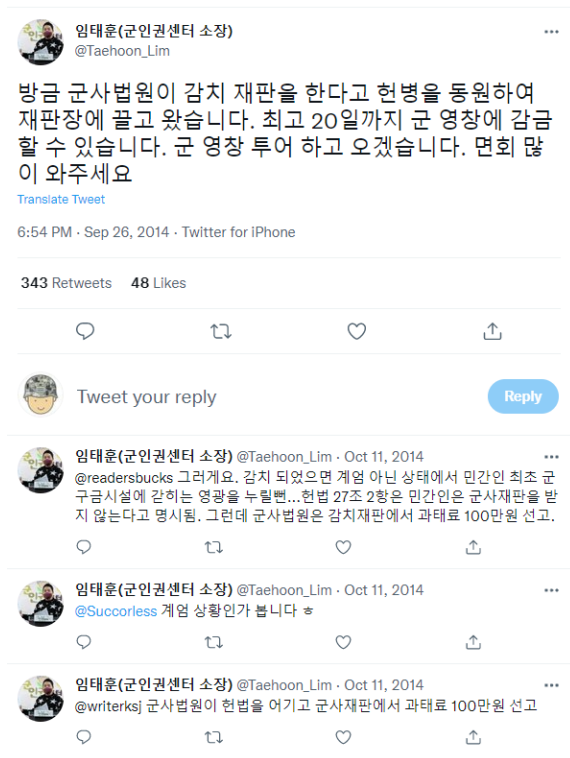
군사법원 모니터링 과정 중이던 2014.09.26. 오후 1시에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제6차 1심 공판에서 임태훈 소장과 모니터링 참가자 시민 1명이 감치재판을 받게 되는 초유의 위험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 소장은 1시 25분경 법정 밖에서 입정하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영장도 없이 가방 및 몸 수색을 하려는 정병에게 ‘몸수색 및 휴대전화 전원 확인’은 규정에 없는 자의적 조치임을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소란이 일었고, 재판부의 부름에 따라 재판정에 입정하여 이를 소명하였

으나 주심 군판사 김송이 소령은²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도리어 퇴정을 명령하고, 이에 불복하자 바로 감치를 명한 것입니다. 당시 10여 명이 이 같은 조치에 항의하여 퇴정하면서 법정이 다시 소란해졌고 재판은 10분간 휴정되었습니다.

이후 윤일병 사건 공판이 종료될 때까지 2명의 무고한 시민이 헌병들에 둘러싸여 법정 건물 밖에서 사실상 감금되었으며 그 상태로 21시 50분에서야 재판부는 과태료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²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감치 등) 및 이에 대한 대법원규칙은 ‘재판장’이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준장 문성철 심판관이었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은 헌법, 군사법원법, 군형법상 특정 범죄가 아닌 이상 민간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군은 장병들을 동원하여 벽을 만들어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과도한 수색 조치가 이전에 있었던 법정내 촬영 및 보도 탓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언론 사진은 피고인을 찍은 일부 신문기사에 불과했고,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촬영물을 살펴보다라도 법정 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닌 법정 밖에서 촬영된 것이거나 법정 밖 모니터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준비 미비를 마치 황색언론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인 양 혹은 시민들이 인민재판을 자행한 양 호도하고 적대시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17.06.21. 피해자 2명이 고등군사법원의 특별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해 버림으로써 민간인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끝내 침해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 실시한 군사재판 감시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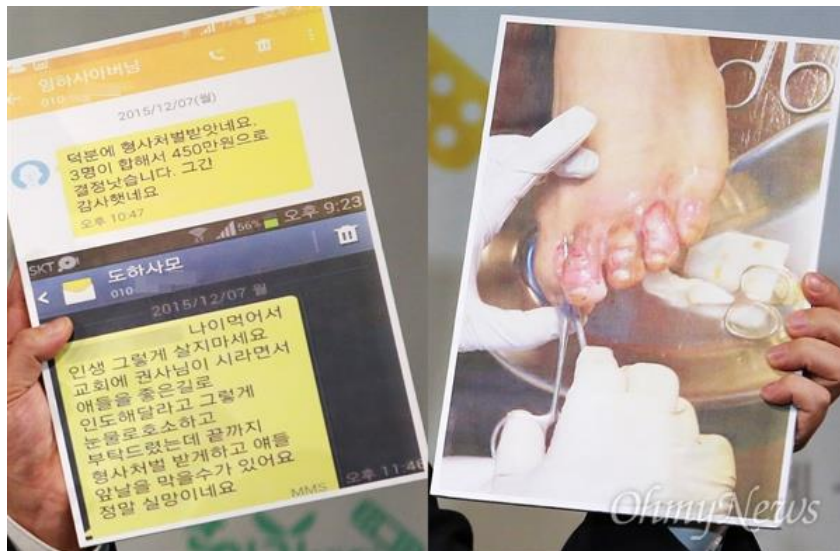
일자	내용
1/8	윤 일병사건 항소심 2차 공판(부검의 증인신문) 법정감시단
1/22	윤 일병사건 항소심 3차 공판 법정감시단
2/9	윤 일병사건 항소심 4차 공판 법정감시단
2/24	윤 일병사건 항소심 5차 공판 법정감시단
3/17	윤 일병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법정감시단
4/9	윤 일병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법정감시단
10/29	오전 10시, 윤 일병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일자	내용
11/4	오 대위사건 항소심 2차 법정감시단
12/18	오 대위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법정감시단

4) 2015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군하사 집단가혹행위 사건

나아가 2015.12.16.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3개월간 동기 부사관 3명에게 편히 쉬어야 할 영내 숙소에서 불 고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하사의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는 소년소녀가장이었으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12월 3일 군검찰로부터 구약식 결정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실도 몰랐었습니다. 12월 7일 오후 10시 47분 가해자 임 하사의 부친은 피해자 측에게 “덕분에 형사처벌 받았네요. 3명이 합해서 450만원으로 결정났습니다. 그간 감사했네요.”라는 모

멸적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1시 46분에는 다른 가해자 도 하사의 모친이 “OOOO, 나이 먹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에 권사님이시라면 애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형사처벌 받게 하고 애들 앞날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정말 실망이네요.”라는 적반하장식의 문자를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를 느낀 피해자 법정후견인이 12월 9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군검찰이 성추행 사실은 쪽 빼고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2015.12.16. 보도

더욱 심각했던 것은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이후 헌병대가 피해자를 2차례나 소환,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게 누가 한 것이냐,’ ‘이 정도는 수학여행에서 누구나 하는 장난,’ ‘가해자에게 양심을 품고 과대포장 한 것이 아니냐,’ ‘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죄명으로 넣기에는 애매하다, 단순 장난’이라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수사계에 불똥이 튀지 않게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공군헌병단이 작성한 참고자료(20전비 하사 3명, 가혹행위 기자회견 관련 확인결과)에서 ‘피해자가 전속을 희망했지만 불가하게 되어 반감이 있다’며 피해자를 흠집내는 등 공군 수사계 전체의 처참한 인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에서 비호할 것이 눈에 보이자 가해자들은 더욱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기 부사관 단체 메신저방에서 2015.12.16. 도 하사는 ‘ㅋㅋㅋㅋ’, 임 하사는 피해자에게 ‘위선자’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5) 2016년 국군청평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의료사고

국군청평병원에서 육군 병장에게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용액으로 착각하여 왼쪽 팔에 주입하면서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차 6월 내원한 김 병장(23)에게 약물을 잘못 투입한 것입니다.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은 간호장교 B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하여 가져왔으나 A대위가 이를 최종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장애보상 2급(1,000여 만원 보상금) 및 전역 후 6개월간 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대희 응급의학과 조교수는 2016.08.1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군 병원에서 1년에 배치되는 간호사는 간호사관학교 출신 70명,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받는 60~70명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며 이런 부족한 인원이 70만 장병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군 병원의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지점은 김 병장이 홀어머니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어렵게 꾸려오던 소년가장이란 점입니다. 피해자의 장애는 결국 영구적 신경 손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군청평병원장은 애초 사고당시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병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병원장 김모 중령으로 드러났으며 군은 가해자에게 병가를 1달씩 주면서 비호했습니다. 성희롱과 스토킹이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징계대상인 비위임은 명백함에도 징계를 차일피일 미룬 것을 군인권센터가 2016.08.18. 폭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12MBC뉴스, 2016.08.16. 보도



사진출처: 천지일보, 2016.11.24. 보도

6) 2016년 육군 제6사단 GP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북확성기 방송 재기, 개성공단 폐쇄로 대치 긴장이 가중되던 2016.02.07. 새벽 4시 철원 GP에서 총성이 울리고, 박 일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5년 9월 박 일병은 유 병장으로부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선임들 빨래는 해두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부혜장 손 중사가 CCTV로 모두 목격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에도 박 일병은 약 1달 간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 폭언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어머니와 누나를 성적 대상화하며 패륜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영화 10도의 흑한에서도 12시간 이상 연속근무하며 4시간도 취침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간부 중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주범 제 상병, 김 상병, 임 일병은 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초범이고 자백했고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그 원인은 드러나지 않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영터리로 흘러가자 2016년 9월 군인권센터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오 대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리부검을 실시, 자살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심리부검에는 이영문 아주편한병원 교육원장,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 박진아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 팀장, 안병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서청희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이용석 용인정신병원 진료과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참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재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에서 유 병장 사건 이후 폭력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1.24. 서울시NPOG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을 낱알이 밝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11월 가해자 가족들은 그제서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진실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고 윤일병 사망 이후 각종 병영문화혁신안을 도입하였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의 결과였습니다. 박 정부는 2015년부터 최순실표 국방정책으로 의심되는 '창조국방'이라는 모호한 표어에 매달렸습니다. 대통령이 부대를 시찰하고 군것질거리를 나눠주는 보여주기식 행정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만약 군인권보호관을 제때 도입했더라면 이번 사건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군사법원이 폐지되었더라면 가해자에게 범죄에 비례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병영문화혁신 성적표는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점철되고 있어 우려가 큼니다.

군인권사업

1. 군인권교육사업

군인권센터는 2013~2015년 교육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은 대체적으로 입대를 앞둔 청년 층과 주변인을 위한 대중강연(특강) 형태였으며 군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시작은 1) 2013.03.22.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사업명: 서울시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10,000천원)된 것입니다. 이는 대중을 상대로한 인권교육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예산 문제로 보류 상태였던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의 명맥을 계승하였습니다. 2) 2015년에도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선정(사업명: 서울 시민을 위한 군인권 학교: 군 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10,500천원)된 바 있습니다.

- 2013.06.28. 서울시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연세대 성평등센터 공동)
- 2013.11.16. 서울시 예비장교 인권교육(연세대 성평등센터, 107학생군사교육단 공동)

참고로 인권학교에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명지대 권인숙 교수, 연상호 애니메이션 감독, 최규석 만화가, 법무법인 다임 성주목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장교 인권 교육에는 연세대 ROTC 3-4학년생이 참석했으며 공동강사로 (사)상호존중과배려운동본부 정두근 총재와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성주목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센터는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미콜 상담은 2013년 상담팀의 명칭을 개편하며 출범하였는데 이후 사건이 증가하며 군인권 상담분야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센터는 3) 2014.03.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공모하여 선정(사업명: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 및 군인권 캠페인/ 9,000천원)됨에 따라 아미콜 상담원을 수명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고 윤일병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이후 심화과정과 워크샵 등까지 거치면서 시민 아미콜 상담원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 2014.06.03.-07.05. 군인권센터 전화상담원 양성과정(기초반)

2015.06.0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우수사업’으로 군인권센터의 2014년도 사업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 및 군인권 캠페인>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군 인권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단체의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인의 전화, 아미콜(ArmyCALL)



군인권센터 전화상담원 양성과정(기초반)

군인권센터는 근대 내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성폭력, 진료권 문제 등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원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군인들의 존엄성 회복과 인권 향상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육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교육장(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
교육기간 2014년 6월 3일(화) ~ 7월 5일(토)
교육일정 매주 화, 목 (6월 3일-7월 1일 저녁 7-9시), 워크숍(7월 5일 오전10시-저녁8시) 총 26시간
참가비 5만원
교육내용 기본적 인권의 이해, 인권운동의 역사, 진료권 및 의료체계,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대응 방법, 군 성폭력,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 워크숍, 입대 병사와의 만남을 위한 군부대 현장 참관 및 캠페인
모집대상 20명(인근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가능)
접수방법 <http://www.mhrk.org> 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 후 mhrk119@gmail.com 으로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4년 5월 27일(화)까지/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양성과정 수료자는 심사 이후 군인권센터 전화상담원으로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주최  **군인권센터**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의 전화, 아미콜(ArmyCALL)



세부교육일정

일시	강의 내용	강사
강좌 1 6/03(화) 19:00~21:00	OT & 군 조직의 이해 오리엔테이션과 군 조직, 특성 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승엽 예비역 육군 대위
강좌 2 6/05(목) 19:00~21:00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역사, 개념, 분야 등	조효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좌 3 6/10(화) 19:00~21:00	인권의 이해 2 군인의 사위권, 자유권 이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좌 4 6/12(목) 19:00~21:00	인권의 이해 3 인권운동의 역사와 쟁점	오양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강좌 5 6/17(화) 19:00~21:00	군 성소수자 인권 군 내 동성애자 인권 침해 및 차별	이민섭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좌 6 6/19(목) 19:00~21:00	군 의료 및 장병 진료권 현행 군 의료체계의 구성과 문제점	김대희 선 군의원, 응급의학 전문의
강좌 7 6/24(화) 19:00~21:00	군 사법체계와 인권 보장 체계 원병대, 군 검찰, 군사재판 등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대표 변호사
강좌 8 6/26(목) 19:00~21:00	군 인권침해 관련 국가보상체계 공상처리, 국가유공자, 순직 등	정연순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 차별시정본부장
강좌 9 7/01(화) 19:00~21:00	군 외 인권 구제 및 보장 체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워크숍 7/05(토) 10:00~12:00	성폭력 군 성폭력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	이미경 이왕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워크숍 7/05(토) 13:00~15:00	성폭력 일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쟁점	이왕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워크숍 7/05(토) 15:10~17:10	상담의 이론 상담 및 전화상담의 기본 이론	함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워크숍 7/05(토) 17:20~19:20	상담의 실제 실제 사례를 통한 상담 연습 등	함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주최  **군인권센터**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 2015.05.27.-06.06. 예비임영자 부모학교

본 강의에는 송현준 전문의,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김광진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여 군 의료 체계 등 부모님들의 근심거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총 36명의 수강생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외 5) 다음카카오 ‘희망해’ 모금(운 일병들을 위한 아미콜 Armycall/ 13,460,293원)을 통해서도 기금을 마련하여 <아미콜 상담원 양성 심화과정>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초적 상담역량을 함양했습니다.

● 2015.06.02.-07.18. 아미콜 전화상담원 양성 심화과정

본 교육은 총 15강으로 구성되었으며 2달 간 약 15명의 강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권운동 역사는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 군 조직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 성소수자 인권은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을 운영위원, 국제기구와 국제인권은 박경서 이대 평화학연구소장, 의문사진상규명역사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군의료는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군사법체계는 최강욱 변호사, 법의학은 이상한 경북대 교수, 국가보상체계는 강석민 운영위원, 성폭력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UN인권매커니즘은 백가운 참여연대 간사, 군인 정신건강은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 상담기초는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께서 맡아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총 15명의 수강생이 함께했습니다.



- 2015.08.28.-30. 아미콜 전화상담원 양성 심화II(전문가) 과정

참고로 이번 심화II 과정 강의를 위해 법무법인(유)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 강남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³ 설립자 조이수현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배상훈 교수, 법무법인 다임의 강석민 대표 변호사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총 2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6) 2016년에는 아름다운재단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 지원사업에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이 선정되어 아미콜 상담원에게 성폭력 특화 관련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보충교육을 운영했습니다.

- 2016.06.17.-19. 아미콜 상담원 심화 워크숍
- 2016.12.17.-18. 아미콜 상담원 심화II 과정 워크숍

상반기 워크숍에는 김광진 국회의원, 강석민 변호사, 김대희 응급의학과 조교수, 김보통 <D.P.> 만화가, 이경환 변호사, 이영문 박사, 이형곤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셨고, 하반기 워크숍에는 강석민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이영문 박사, 오동석 교수, 조중신 소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아미콜 자원상담가 중 2016 년 활동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 이영수, 정영심 상담가는 일정상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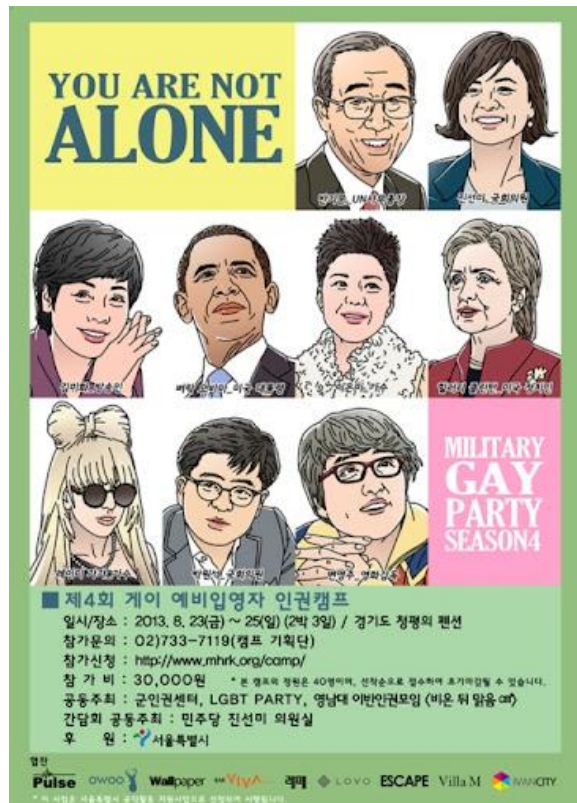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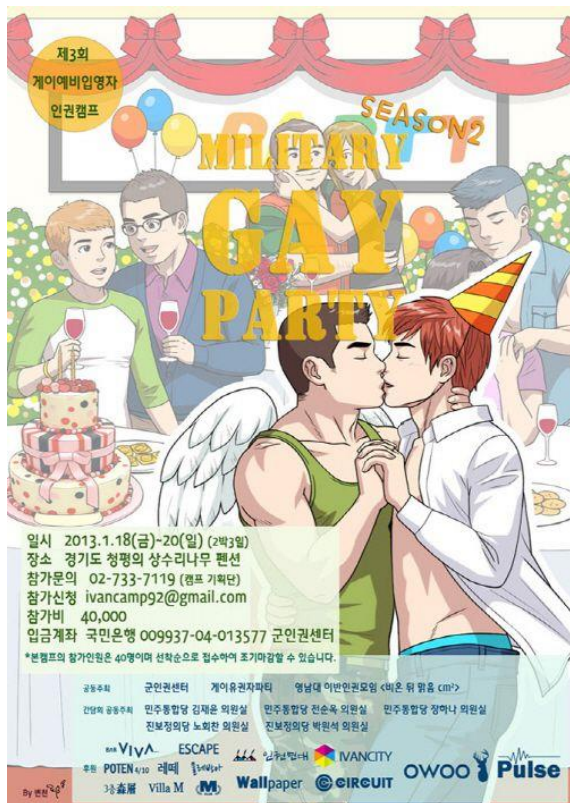
³ 홈페이지 <https://www.traumahealingcenter.org:46084/home>

구분	월	화	수	목	금
상담원 1	김영록	윤선주	윤호순	임상열	박성석
상담원 2	조한준				

● 2013.08.23.-25. 제5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4)

한편, 군인권센터는 군내 소수자 중에서 종종 잊힌 존재로서 방치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각종 후원과 기획팀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2010년 이후 끊긴 인권캠프를 2012년부터 다시 개시하였습니다. 각 캠프에는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주최하여 성소수자 예비입영자의 고민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2013년 참가자 모집 포스터는 국회 의사당에 게시된 이후 모 보수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군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인권교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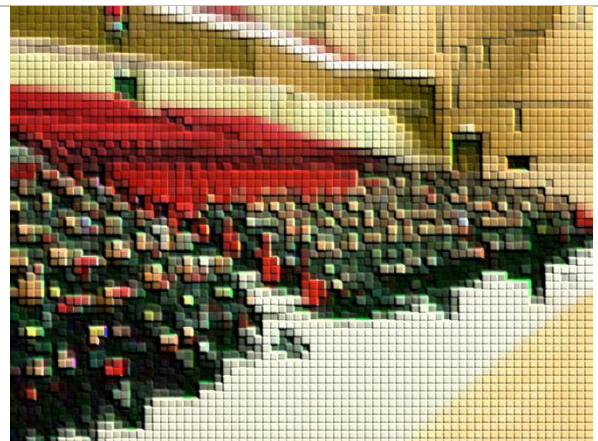
군인권센터는 2013~2015년 간 군 부대, 관공서, 대학교 등에서 의뢰를 받아 인권교육,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고 윤일병 사건 직후부터 각종 군 인권침해 사건이 세간에 주목을 받으며 교육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3년 인권연대 제11기 청년인권학교: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강사(소수자를 보는 눈, 07/19.), 2014년 성북구 제6기 주민인권학교: ‘사람 더하기 사람, 다시 사람을 생각하다’ 강의 강사(군대와 인권문제, 10/14.), 2014년 평화 아카데미 평화를 만나다: ‘삶의 작은 평화에서 더 큰 평화를’ 강연 강사(평화롭지 않은 군대와 한국의 병영주의, 11/05.), 2014년 10.27. 법난 기념사업: ‘국가폭력, 성찰과 치유의 길을 찾아’ 강연(군인정신에 숨겨진 군대내 폭력, 10/16.)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2013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의경 대상 특강, 2015년 의무경찰 대상 특강 등의 장병대상 교육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2015.07.14.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특강



2015.11.27. 해양경찰교육원 특강

덧붙여 교육기관에서도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2014년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위원회 ‘이달의 인권강연’ 초청 특강(군대, 당신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2014.03.28.), 2014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나셨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강원대 기초교육원에서 교양강의 강사 및 정치외교학과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성대학교,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등의 의뢰로 2014년 출강을 나셨습니다.



2013.11.2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2014.09.17.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3. 군인권정책사업

1) 토론회

군인권센터는 2013년 군형법 92조의6 토론회(03/14), 2014년 28사단 윤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08/13), 2014년 군성폭 실태조사보고서 결과 발표 및 입법간담회(08/20), 2016년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07/18)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법률신문, 2014.08.14. 보도

이외 2013년 군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04/15)에 패널, 2013년 MBC 이브닝 뉴스 [이슈&인터뷰] ‘군 복무기간 단축’ 찬반 토론 패널(01/16),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09/27),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간담회 지정토론 패널,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군성폭력 토론회, 2014년 KIDA 군복무 학점인정 토론회, 2014년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지정토론(09/16), 2014년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자(10/03)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병사가 그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사법원은 외부 이양되어야 한다.”

(강석민 변호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2014.10.03. 10.4 남북선언 7주년 토론회)

“장병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의관에게 진료 받는 수준의 의료 시스템 만들어져야 한다. 국방개혁, 병영문화 변화 핵심은 병사들의 생명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4.10.03. 10.4 남북선언 7주년 토론회)

발언 출처: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 2014.10.04. 게시글⁴

2) 제도개선

군인권센터는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패널로 참석하면서 인권친화적 국방정책 안착을 위해

⁴ “평화와 통일 담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쇄신·발전시켜야” 접속경로: http://202.30.131.83/rmhworld/bbs/view.php?pri_no=999498081&tn=t1&wdate=&gno=0&stype=0&search_word=&page=51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구체적 정책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투쟁을 통해 위헌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모했습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2013년 군인지위향상기본법(안규백의원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13년 균형법개정안(민홍철의원대표발의)에 대한 공동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군인권공동행동과 함께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 청원’(12/01)을 제출하였고, 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05/30)를 단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3년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입창 처분을 받은 의무경찰을 대리한 2012년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서울행정법원 2012아3461)에 이어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16.03.31. 헌법재판소는 위헌 5명으로 정족수 1명이 모자라 합헌결정함/2013헌바190)을 이어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위헌심판 공개변론 방청과 2014년 윤일병 유가족을 대리하여 결심공판 의견서(10/24)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육군 클로버위원회)는 2014.12.18.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영역	권고 과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 복무부적응자 조기인지 및 개인신상 비밀 보호 •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 병영 안전평가 및 실천 습성화 •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의료시스템 보완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 장병권리보호법(안)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 • 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 고충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행동기준 정립 • 해체·이전부대 생활관 조기 개선 및 병영복지시설 확충 •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 시행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간부 확보 위한 선발·조기퇴출 제도 개선 •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부여 및 부대 배치 • 군대 윤리 및 리더십 교육 강화로 올바른 군인가치관 확립 •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 적용

참고로 2014년 총기난사 사건과 함께 운송주 일병이 21세기에 장기간 구타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세상에 다시금 알려지면서 국회는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11월 10일 발족시켰습니다(위원장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특위는 11월 13일 25개 중점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군 사법제도 개선, 2)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3) 우수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4)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5) 군형법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이었습니다. 다만, 1)과 2)는 국방부의 거센 저항으로 2021년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았으며 5)는 영내폭행에 대한 친고죄 삭제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애초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시작했으나 2014.10.31. 1차 연장되어, 2015.07.31.까지 264일간 활동했습니다.

특위는 전체회의 12회, 소위 7회를 열었고,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8곳 등을 통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함께 발맞춰 활동했다. 특위는 활동 결실로서 7개 분야 39개 과제(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전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징병검사 전문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입대 후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부대잡무 민간 용역화 ▽군내 장병교육시스템 개선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GOP·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군사법원과 관할관제도, 확인 조치권, 심판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황영철 특위 위원의 대표발의로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 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복지차원에서 1)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 가점, 2) 특수직무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 확대, 3)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 4)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특위에는 새누리당 정병국(위원장)·황영철·김용남·김종태·박명재·신의진·윤명희·이채익·홍철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김광진·남인순·도종환·민홍철·백군기·윤후덕·이학영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특위는 2015.07.24. 의안번호 16219: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같은 날 16시 55분 본회의에서 재석 222명 중 찬성 216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대한 의원은 안홍준, 한기호, 기권자는 김진태, 민병주, 손인춘, 홍문중 의원이었습니다.⁵

3) 국제연대

2013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방한 간담회

국제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위원들이 2013.12.18. 오후 4시경 시민사회와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내 자살, 고문, 차별 문제를 위원들께 전달, 2017년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대량의 군 인권관련 권고를 도출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⁵ 국회사무처. (2017). “55.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 제출)”, 제335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19, 56쪽.

2015 UN 인권최고대표(HCHR) 방한 간담회

UN 인권최고대표 자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은 2015.06.23.-25.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0년 Navi Pillay 대표가 방한한 이래 11년만의 공식 방한이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2015.06.24. 오전 1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Korea in the Human Rights World”를 주제로 특강(제96차 연세리더십 특강)을 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방청한 군인권센터는 군의 자의적 징계입창 실태, 군 자살 및 가혹행위 실태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2014년 고윤승주 일병 사망사건으로 드러났듯이 군인권에 대한 UN 차원의 조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2016 UN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6.01.20.-29.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우리나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촛불집회 등 대규모 군중집회가 있던 시기 의무경찰을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게 시위현장 ‘전면(前面)’에 배치하여 시민들과 비숙련 보조치안 인력을 대치시키는 정부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관행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방한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A/HRC/32/36/Add.2).

해외 정부 상대 활동

먼저 2013년 리처드 M. 로버츠 주한미국대사관 부문정관이 군인권센터에서 1주간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센터는 UCMJ 관련 자문과 함께 서울구치소 견학, 경찰청 인권센터 방문(남영동 대공분실 견학), 인권연대 및 평화박물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후 센터는 미대사관 정치과와 2013.05.10. 실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미 국무부와 협력관계를 공공히 하며 미 국무부의 연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작성을 분석, 한국군의 인권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편지는 미 대사관에서 제공한 번역본입니다.

리처드 로버츠 인턴으로부터 온 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일을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듯, 나 역시 그렇게 군인권센터를 알게 되었다. 어느날 나는 국회에서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회 게시판에서 볼 법한 포스터 같지 않았지만, 포스터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 후 종로에서 그 포스터를 다시 보았지만, ‘게이’, ‘입영’, ‘캠프’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시 시간이 지나,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연사가 이 포스터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그제야 나는 제대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캠프 날짜도 지났고, 공부에 전념하느라 포스터는 다시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어 학교에서 단어를 암기하고 도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법 구조를 익히며 하루를 보낸다. 보통 선생님과 일대일 수업을 하지만, 한국 사회와도 가능한 많이 교류하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나의 동료인 폴 토마스 주한 미대사관 부문정관(Assistant Cultural Affairs Officer)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물었다.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임태훈’과 ‘군인권센터’였다. 폴이 그곳에

서 하는 일을 설명했을 때, 나는 갑자기 그 포스터가 생각났다. 마치 운명처럼, 군인권센터는 게이 예비입영자캠프를 주최해 오고 있었고, 이 캠프는 한국의 성적 소수자들이 입대 전후나 군대시절 마주치는 문제들을 다루는 장이었다. 이곳은 교육, 동료애, 재미가 어우러진 곳으로, 한국내 성적 소수자들이 군 관련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군인권센터가 성적 소수자들의 군 관련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권과 군 관련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권과 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일주일간의 인턴십 기간 동안 임 소장님은 국회에서 열린 군 의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데려가 주었다. 그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인권운동가와 군인권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주었다. 우리는 서울남부교도소와 남영동 대공분실도 방문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바쁜 한 주를 보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었다. 남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헌법상 자유를 군인들 자신도 누릴 수 있도록 임 소장님과 센터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인권센터는 모든 한국인들이 입대 전후와 군 복무중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괴롭힘, 학대,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그 권리를 국가에 요구한다.

나는 일주일간 군인권센터 인턴으로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센터에서 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임 소장님과 사무국 직원 조규석 간사, 김윤상 인턴, 송현민 인턴 등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인턴십 기간 동안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맺은 우정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3.05.09.

리차드 M. 로버츠

2013-2014 UN ECOSOC 협의지위

군인권센터는 2012년 6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ECOSOC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신청한 바, 2013년 5월 20~29일 열리는 NGO 위원회 회기를 위한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1) 단체에 공무원 신분인 자가 임원으로 선출된 바, (중앙/지방)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 2) 군사분야 활동단체로서 ECOSOC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5월 20일까지 설명해줄 것을 5월 10일 요구받아 5월 18일 답변했습니다. 이후 2014년 정기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2013년 12월 10-11일 사이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NGO 위원회(중국 대표)는 재정보고서상에서 지출의 75%를 넘어서는 비중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었으나 최종 검토 후 제출이 되지 않았고, 결국 2014년 5월 19-28일 열린 회기에서 2회 연속 답변 미제출로 신청이 종료됨을 2014년 6월 18일 통보받았습니다.

2013~ 미국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Human Rights Report) 자료 제공

군인권센터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군 인권 주제만을 추려 정리한 내용을 2015.06.29.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매년 군 인권 관련 내용을 발췌 번역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단, 일본군 위안부 혹은 군부독재와 관련된 과거사 관련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으며 다음은 요약본이며, 2015년과 2016년도

인권보고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성차별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다가 2005년부터 군내 구타 문제에 주목했고, 2014년 고 윤일병 사망사건부터는 매우 자세하게 군인권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2016년부터 직접적으로 군인권센터를 인용했습니다.

시기	보고서 내용
1999	군가산점제로 인한 여성의 취업상 차별 헌법재판소의 12월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 여성 사관생도 입학정원 확대
2000 ~01	정부기관의 군필자 선호에 따른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 지속 여성 사관생도 입학정원 확대 확인 군가산점제 위헌 확인
2002 ~03	(2000년 지적 사항 반복) 인권위의 영창시설 실태 및 의료실태 조사
2004	(2002년 지적 사항 반복) 종교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면제 및 비군사적 대체복무 미도입 대부분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874명의 병역거부 수감자 통계 2/26 임태훈 구금(성적 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포함 요구)한 사건
2005	정부기관의 군필자 선호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 지속 빈번한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이에 따른 자살 문제 (국회, 국방부의) 군인 자살 예방을 위한 군복무환경 개선 노력 8월까지 5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선고
2006	정부기관의 군필자 선호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 지속 빈번한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이에 따른 자살 문제 8월까지 25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선고
2007	정부기관의 군필자 선호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 지속 매년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100여 명의 징집병이 자살하는 통계 (정부소식통) 군인 자살자 중 일부는 정신질환 및 개인사유가 요인 8월까지 80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선고
2008	정부기관의 군필자 선호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 지속 2004년부터 군 자살자 321명 중 많은 경우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원인 (민가협) 12월까지 399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선고 (법무부) 법률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별하지는 않음을 확인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소식
2009	2004년부터 자살한 군인 356명 중 많은 경우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원인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제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소개 (법무부) 기존 입장 재확인 (여호와의증인) 4월 1일까지 465명의 증인과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균 14개월 복역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확인
2010	*주요의제: 군내 가혹행위 및 양심수 징역형 6월까지 35명의 군인 자살사고 / 13명은 구타, 가혹행위, 부적응이 원인 (국방부) 자살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했으나 체포된 경우 없음 (국방부) 자살예방프로그램 유지 (법무부) 기존입장 반복. 2009년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 철회 (여호와의증인) 11월까지 933명의 증인과 약 30명의 병역거부자 평균 18개월 복역

시기	보고서 내용
	<p>… (계속) …</p> <p>헌법재판소, 2002년과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군형법 제92조의5 사건 구두변론 개시</p>
2011	<p>*주요의제: 군내 가혹행위 매년 40명의 군인 자살, 이중 10명은 구타, 가혹행위, 부적응이 원인 (국방부) 기존 입장 반복 (법무부) 기존입장 반복 (여호와의증인) 12월까지 761명의 증인이 평균 18개월의 징역형 복역중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근거(「병역법」)합헌결정 헌법재판소 군형법 제92조의5 합헌결정에 따른 군내 성소수자 차별 지속</p>
2012	<p>*주요의제: 양심수 징역형 매년 72명의 군인이 주로 구타, 가혹행위, 부적응으로 자살 대법원, 1950년대부터 있었던 총 208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고 기각 UN 자유권위원회, 10월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중단 및 범죄기록 삭제 권고(개인통보결정) 군내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 2011년 3월 합헌결정</p>
2013	<p>*주요의제: 양심수 징역형 (국방부) 2010년 자살사건 수사 및 자살예방 조치 재확인 (법무부) 기존 입장 반복 (국방부) 13명의 남성 동성애자가 10~15일간 영창 구금 확인 (여호와의증인) 11월까지 733명의 증인이 평균 18개월 징역형 복역중 (헌법재판소) 군내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 2011년 3월 합헌 결정 확인</p>
2014	<p>*주요의제: 양심수 징역형 및 군내 따돌림과 가혹행위 신문 보도/ 4월 한 달에만 3,900명이 넘는 가혹행위 가담자 적발 고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및 전 국민적 공분 소요 소개 고 윤일병 사건 피의자 6명에 대한 보통군사법원 판결(3월~45년) 8월 2명의 병사 동반자살 사건, 그 원인(가혹행위)과 국민적 관심 소개 8월 대통령 지시에 의한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설치 소개 (국방부) 2014년 상반기 총 37건의 자살, 일반적 원인은 괴롭힘, 부적응 (법무부) 기존 입장 반복</p>
2014	<p>군내 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가혹행위 300건 접수 (국방부) 군인권교관 2,000명 증원 및 2015년 군인권평가 계획 소개 (인권위) 9월 군인권전담 부서 설치 소개 (NGO) 국보법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치범 간주 주장 소개 (NGO) 캐나다, 프랑스, 호주에서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망명 허용 사례 (국제사면위원회) 9월까지 680명의 병역거부자 수감중 (여호와의증인) 9월 30일부 576명의 증인 징역형 복역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종교적 근거보다 정치, 도덕적 신념 사유가 증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전말(7,100건의 게시글)과 결과(연재욱, 옥도경 사령관 포함 21명 기소) (헌법재판소) 군내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항문성교) 금지 계속</p>
2015	<p>*주요의제: 양심수 징역형 (국방부) 작년 상반기 자살자 37명, 올해 동기간 24명으로 감소 보고 단, 사회적 우려 잔존(군 자살 원인은 주로 괴롭힘, 가혹행위, 부적응)</p>

시기	보고서 내용
	<p>… (계속) …</p> <p>(국방부) 작년과 달리 6월말까지 괴롭힘 발생 미보고 2014년 인권평가제도 도입 소개 및 9월 국방부 평가 실시 사실 확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8월 임모 병장 사형 선고(5명 살인, 7명 상해)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개정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명문화⁶ (국방부) 8월 340명의 군인권교관 훈련 (국회) 집권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 병영문화개선특위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법률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미포함 대체복무제 미도입 재확인 (국제사면위원회) 9월부 635명의 병역거부자 수감중 (여호와와의증인) 8월부 555명의 증인 징역형 복역중 군인사법 등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혐의자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 군내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항문성교) 금지 계속</p>
2016	<p>*주요의제: 양심수 징역형</p> <p>상반기 군내 자살자 2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국방부의 제도개혁 일부 성과 확인(3개년 지속 감소세) 일반적 견해와 달리 가혹행위 사건 미보고 (군인권센터) 1~9월간 245건의 구타, 가혹행위 사건 접수 (국방부) 인권평가제도 도입 후 7월까지 380건의 개선안 도출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도입 (국방부) 인권위와 군인권교관 600명 양성/ 2019년까지 3,000명 훈련 계획 (법무부) 기존 입장 반복 (국제사면위원회) 7월부로 499명의 병역거부자 수감중 (여호와와의증인) 1~7월간 400명의 증인 징역형 복역중 우병우 前 민정수석 아들의 군복무 특혜 혐의 수사 사실 (헌법재판소) 7월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결정/ 군내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 금지 계속</p>

2015-2016 해외 인권옹호자 면담 등

다른 한편, 4박 5일 일정으로 2015.08.03. 방한한 Ruth Bader Ginsburg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4일 한국의 주요 성소수자 활동가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군인권센터는 군내 성소수자 인권과 군 인권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2016.02.11. 방한한 Randy W. Berry (랜디 베리) 미국 초대 성소수자인권특별대사는 한국의 주요 성소수자 및 인권단체 관계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상황과 군내 성소수자 문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한국에서는 징병 신체검사를 할 때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로 분류한다”고 설명했고, 특사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덧붙여서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퀴어 군돌이 뱃지를 전달하는 등 국제연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⁶ 단, 기존에도 이는 명문으로 금지되었으며 보고서가 지시하는 사실은 추측컨데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및 타법 제개정에 따른 군 외부 고충처리 절차 이용 금지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2015-2016 해외 인권실태 견학

끝으로 임태훈 소장은 2015년 미국 국무부 초청 IVLP(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참가하였고, 2016년에는 프랑스 외무부 초청 PIPA(Programme d'invitation des personnalités d'avenir)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2015.11.19. 주한프랑스대사관을 방문하여 테러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했습니다.

4) 연구사업

연도	연구과제명	발주처	비고
2013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2013	군 인권 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2014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음부즈만법 연구	국회 국방위	
2014	군 성폭력 실태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	
2015	여군 성폭력 실태조사	국회 여가위	
2016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	우상호 의원실	

5) 거버넌스

군인권센터는 건전한 국방분야 협치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2013년 국방부 백승주 차관 조찬간담회 참석, 2013년 KIDA대체복무제 포럼 발제, 2013년 국회 국방위의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2014년 KIDA 군사시설이전 포럼 참석, 2014년 법무부 제4기 NAP 간담회,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 전문위원 참여 및 제2함대사, 육군야전사, 제17비행단 등 현장 부대 시찰, 국회 국방위 병영문화혁신 공청회 진술으로 출석했습니다. 2015년에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해병대사령부 등을 시찰했습니다. 2015년 윤후덕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국방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육군 제3보병사단 방문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방문

(으뜸병사단 면담)



해병대 사령부 방문

4. 군인권상담사업

군인권센터는 2014년 이래 2016년까지 3년간 상담역량 강화에 전념했습니다. 각종 군대 폭력 사건이 난무했던 시기에서 군인권상담 전문화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미콜 상담전화

2013.01.부로 군인권센터는 기존 상담팀에서 제공하던 군인권상담을 군인권침해 피해 상담전화 ‘아미콜(ArmyCALL)’로 개편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군 장병들에게 ‘인권’이라는 다소 거창하고 무거운 단어보다 일상의 소소한 고민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상담을 지향하고자 단행했습니다. 이후 2016.03.02.부터 2014~2015년 양성된 아미콜 자원상담가들과 함께 평일 야간(18~21시)에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내담중인 병사들이 휴대전화와 없고, 근무 후 휴식시간에서야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말 상담은 어렵더라도 야간 상담의 필요성은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육군의 ‘아미콜’ 표장 강탈 사건

고 윤일병 사건이 군에서 착착 은폐되고 있던 때,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가 2013년부터 사용한 ‘아미콜(armycall)’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펼쳤습니다. 먼저, 육군본부는 특허청에 ‘아미콜(armycall)’ 상표 출원을 2014.06.05. 신청하고, 군인권센터에 공문을 보내 “육군의 고유 업무를 방해”한다며 ‘army’의 사용 금지를 요구, 06.27.까지 회신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06.11. 시행 예정이던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전격적으로 취한 조치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육군은 되려 군인권센터가 신의칙을 위반해 육군 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군은 심지어 5월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선으로 군인권센터가 수행하던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등 해당 업무표장이 이미 선점되어 널리 사용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2016.06.26.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육군본부의 만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개정된 「상표법」 제7조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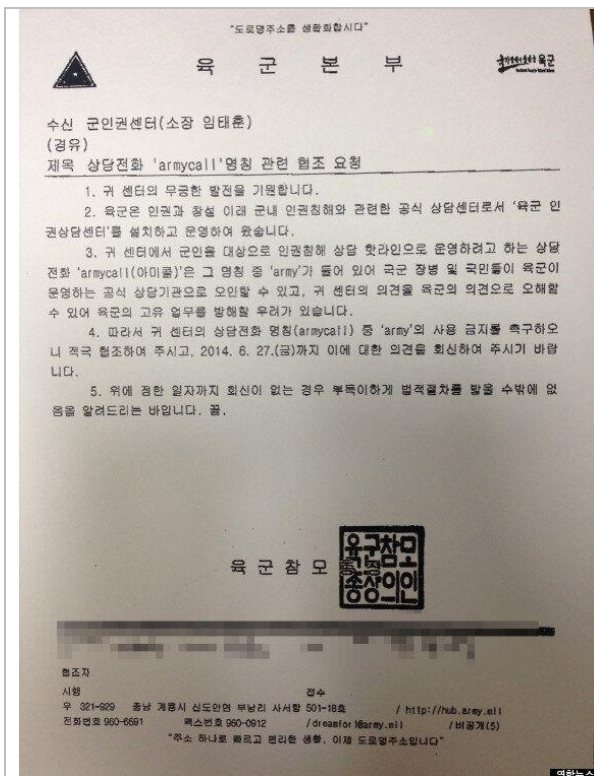
동시에 군은 법적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된 「군인복무규율」 제25조제4항(1998. 12. 31. 신설)이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방치한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장병들의 피해호소를 원천 가로막고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청원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규정이고, 피해자를 입막음하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다만, 2015.07.13. 해당 조문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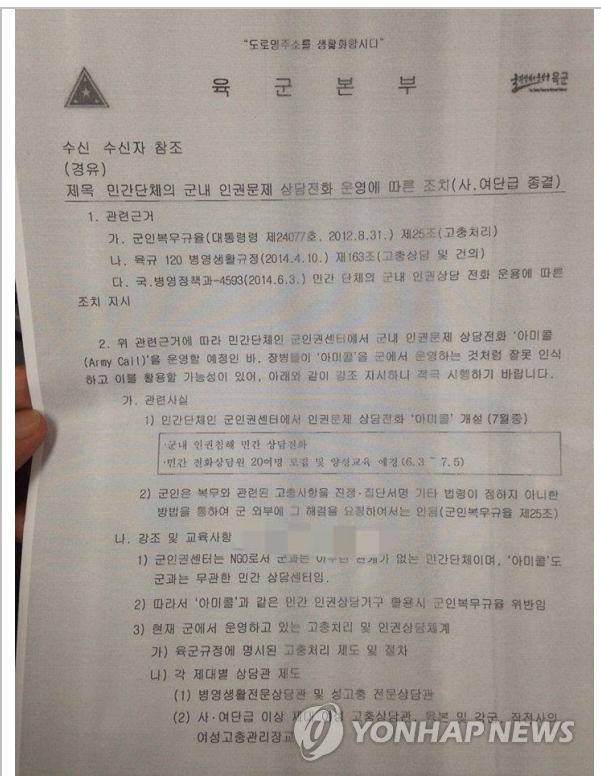
는 방법에 따라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2016.06.30.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이 2015.12.29. 국회에서 제정되며 「군인복무규율」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2014년 육군의 장병들의 군인권센터 상담 이용 방해 사건

게다가 2014.08.10.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6월 육군이 각 부대에 ‘민간단체의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사.여단급 종결)’라는 내부 공문을 하달, 위협적으로 군인의 외부 청원을 금지하던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근거로 군인권센터가 군과 관계 없는 민간단체이고, 따라서 민간 상담기구 이용시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사실을 교육하라는 지침을 전파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4.08.10. 보도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6.06.26. 보도

상담 후속조치

더불어 2015.10.21. 군인권센터는 국군교도소에서 고 윤일병을 살인한 죄로 복역중이던 이찬희 병장의 타 수용자에 대한 만행을 폭로, 수 개월간 고문과 가혹행위가 재발했음에도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국군교도소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문방지협약선택의 정서」(OP-CAT)를 가입하지 않아 상설 고문 감시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에서의 폭력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아미콜 상담 전자체계화

한편, 군인권센터는 상담인력의 확보와 함께 상담절차, 체계를 전문화하는 작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먼저, 상담매뉴얼을 작성, 인원 수가 늘었지만 균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절차화했습니다. 나아가 2013년과 2016년 재능기부자의 도움으로 소액의 수고비만 지급하고도 정교한 전자상담

프로그램(DB)을 구축하여 기존 수기작성에서 오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를 모아 통계분석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문서생성과 보관, 인사관리, 비품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념사업

2014.04.24. 故 노우빈 훈련병 3주기를 맞이하여 군인권센터는 추모패 제작,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헌정했습니다.

노우빈 훈련병은 2011년 4월 육군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에 감염된 뒤에도 고열을 호소하였지만 의료인 한 번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무려 8차례의 생존기회를 놓치고 피병취급을 당한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노 훈련병의 죽음으로 군 의료체계의 부실함이 세상에 드러났고, 2012년부터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전 군 훈련소(단)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비슷한 시기 훈련소에서 건강권 침해로 사망한 이재연 훈련병(02/09), 정희택 훈련병(02/25)의 사망의 책임자인 육군훈련소장 박성우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다시 한번 고 노우빈 훈련병, 고 이재연 훈련병, 고 정희택 훈련병의 명복을 빌며, 군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법 제·개정 과정

2014년 고 윤승주 일병 집단구타 사망 이후 국회는 특위를 만들고 국방부는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가며 이 문제를 묵과할수없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법과정에서 2015.11.24. 황인무 국방차관은 “군내부 진정 등 해결법이 존재”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고, 11.25. 군인권공동행동 명의로 12개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도 12.09. 국회 본회의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둘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사실 이미 국회는 국회의원 20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의결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까지도 여전히 실질적 제도 도입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국회는 「군사법원법」 또한 개정하여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감정 폭 1/3로 축소 및 적용대상 형량 제한) 및 심판관 축소, 군판사 임기 명문화 등을 헌정사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관할관, 심판관 전면 폐지라는 2005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이상에는 턱없이 모자란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5. 군인권홍보사업

1) 언론대응

시기	종류	제목
2013.04.12.	성명	상관모욕죄, 유죄 판결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규탄한다!!!
2013.06.19.	보도자료	故 신성민 상병에 대한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며
2013.06.20.	보도자료	뇌종양으로 사망한 故 신성민 상병의 장례 이행 합의
2013.12.09.	성명	세계인권선언 65주년에 즈음하여: “입이 있어도 말할 곳 없는 군 성폭력 피해”
2013.12.16.	보도자료	장성택 처형,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2014.01.16.	보도자료	해병대 성폭력 사건 긴급 기자회견 등
2014.03.17.	보도자료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의 가해자 노 소령을 엄벌에 처하고 증거인멸과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4.03.23.	논평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인정할 수 없다!
2014.04.01.	보도자료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오 대위 순직결정을 환영한다
2014.04.14.	보도자료	위법한 판결로 가해자 두둔한 군사법원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2014.06.26.	보도자료	GOP 총기 사건 관련 대국민 호소문
2014.07.31.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긴급 현안 브리핑
2014.08.07.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긴급 브리핑
2014.08.19.	보도자료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사건 관련 브리핑
2014.08.27.	보도자료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윤 일병) 추가 브리핑
2014.09.02.	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살인죄 기소와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2014.09.10.	논평	대법원의 해병대 성폭행사건 재상고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논평
2014.09.25.	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
2014.09.28.	보도자료	윤 일병 추모의 밤 보도협조 요청서
2014.10.07.	보도자료	군사법원의 초헌법적인 감치과태료처분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014.10.15.	보도자료	고 오 대위 사망 1주기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기자회견문
2014.10.23.	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결심공판 하루 앞두고 의견서 제출
2014.10.31.	논평	윤 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선고로 군 관련자 면죄부
2014.11.04.	보도자료	고 오 대위 심리부검 관련 기자회견
2014.11.05.	보도자료	김홍석 육군법무실장 엄중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4.12.03.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2014.12.18.	보도자료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
2015.01.28.	보도자료	군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 규탄 기자회견
2015.02.04.	보도자료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입증해준 1군사령부의 입장자료
2015.02.04.	보도자료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1군사령관 규탄 기자회견
2015.02.09.	보도자료	국민과 언론을 우롱하고 피해자와 65만 장병의 명예를 훼손한 1군사령관 규탄 기자회견
2015.02.23.	보도자료	여군 비난 장성에 대한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5.04.06.	보도자료	윤 일병 1주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입장
2015.04.07.	보도자료	윤 일병 1년, 여전히 진행 중인 군대폭력 규탄 기자회견
2015.04.29.	보도자료	의무경찰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찰당국 규탄
2015.04.30.	보도자료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패 관련 기자회견
2015.05.07.	보도자료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비리 관련 2차 기자회견
2015.05.14.	논평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건 관련 긴급논평
2015.07.16.	보도자료	대법원 상고기각, 오대위 성추행법 노소령 구속수감

시기	종류	제목
2015.07.27.	성명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한 부여한 국회 결의안을 환영
2015.08.26.	보도자료	의경의 죽음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는 축소수사 규탄 기자회견
2015.09.06.	보도자료	국가가 외면한 목함지뢰 피해 장병을 위한 'Daum 희망해' 모금 돌입
2015.10.21.	보도자료	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의 범죄행위를 외면한 국군교도소 규탄 기자회견
2015.11.09.	논평	유엔의 한국군 인권상황 개선 촉구 권고 환영
2015.11.25.	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즉각 처리하라
2015.12.04.	보도자료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감시단 운영
2015.12.16.	보도자료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축소·은폐 관련 긴급 브리핑
2015.12.22.	보도자료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브리핑
2016.02.04.	논평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2016.02.25.	보도자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3기 운영위원장 및 3대 소장 임명안 가결
2016.03.02.	보도자료	국군 장병을 위한 야간상담 개시 및 전담 상담원 위촉 관련
2016.04.07.	논평	영창제도 합헌결정을 통해 제도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묵과한 헌법재판소
2016.05.30.	보도자료	국회를 무시한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영터리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즉각 수정해야 한다
2016.07.17.	보도자료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2016.07.21.	보도자료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병역특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관련
2016.10.19.	보도자료	해군 (예)제독, 링스헬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피소
2016.11.11.	보도자료	의경의 방패는 박근혜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2016.11.24.	보도자료	박근혜의 병영문화혁신 실패가 박 일병을 죽였다
2016.12.05.	성명	이젠 새누리당 당사 청소까지 의경을 동원하나?
2016.12.16.	성명	53사단 폭발사건 책임자의 사법적 단죄를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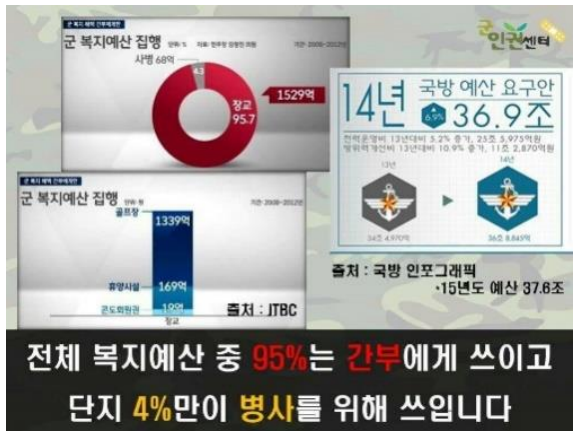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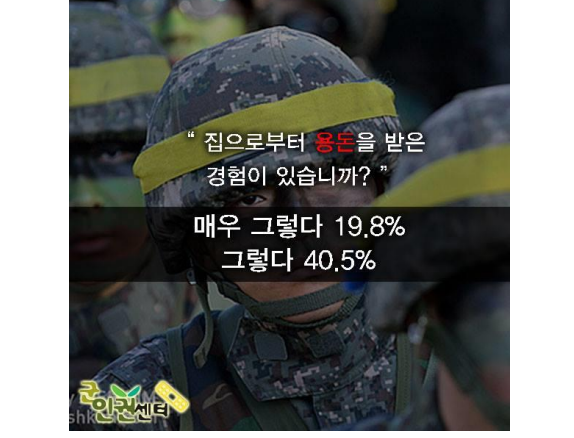


블미스립게도 2013 년 경향신문의 2013.01.31.자 기사가 사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본 센터의 허가없이 송고된 점을 발견하여 출입정지 조치하였다가 기사수정과 대면 사과를 받은 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2015.04.29.부로 내려진 조선일보, TV 조선, 채널 A 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는 6 개월간 시행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2016.04.2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임태훈 소장이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경찰을 합법적으로 애먹이는 방법'을 소개해 논란을 야기했다는 식으로 2015.04.22. 보도하였는데 당시 광화문 일대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전제한 뒤 자의적 해석으로 발언을 악의적으로 재편집하여 보도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각종 언론 인터뷰와 섭외에 응하였으며, 2014.08.05. MBC 100 분 토론에는 임태훈 소장, 성주목 운영위원이 출연하여 고 윤일병 사망사건 직후 폭력의 대물림에 초점을 맞춰 '군대 폭력 근절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언론기고를 하는 등 군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2013.09.21. 송현민 간사는 MBC 예능 <진짜사나이>의 허울을 파헤치고 군대폭력과 군사문화를 조장하는 면을 성찰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⁷ 임태훈 소장은 2016 년 인터넷언론매체인 허핑턴포스트에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기고글을 남겼습니다.

시기	제목
2016.03.13.	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2016.03.17.	'윤일병 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또 축소·은폐
2016.04.07.	우리군은 일본제국군의 후예인가?

⁷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7539

또한, 2016년에는 카드뉴스를 활용, SNS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먼저 전임병 前 특전사령관 재임중이던 2014년 발생한 특전사 고문체험훈련 중 사망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4월 노우빈 훈련병 추모일에 맞춰 군 의료체계에 대한 소식도 다뤘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군와이스 사건’으로 지칭된 야구장 치어리딩 춤을 따라한 병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 논란과 함께, 지휘관의 방만한 권한의 남용을 드디어 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통제하게 된 역사적 순간도 알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병사에 대한 열정페이 문제와 군 복지시설(매점 등 민영화에 따른 문제)의 폭리 등 경제권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2)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

군인권센터는 2015년에서 2016년 대학생 군인권 서포터즈 1, 2, 3기를 각 모집하여 운영했습니다. 2015년 1, 2기 서포터즈는 서울시 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기 서포터즈는 연초 서울 지방병무청 아미콜 상담카드 배포 캠페인, 3.8 여성대회 부스 참가, 서울 쿼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1기 서포터즈는 6월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캠페인은 2013.11.19. 306보충대에서 실시한 이후 재개된 것입니다.



2기 서포터즈는 10월 서울대·고려대 인권주간 부스 참가, 11월 춘천 102보충대 앞 그리고 논산육군훈련소 앞에서 각각 입대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2015년 새로 10만 장을 제작한 군인권카드 (ArmyCALL) 배포 캠페인을 진행했고, 서울대에서 군인권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세미나를 갖고 ‘인간안보’, ‘군내 부적응자 분류제도 낙인효과’, ‘징계입창 위헌성’, ‘군인권과 통신의 자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2기 서포터즈는 2016.01.23. 봉도수련원에서의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카드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남성(58,000여 명)에게도 배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또는 취업 후 1~3년 안에 군 복무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정확한 군인권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군인권센터는 다음 ‘희망해’ 기금을 통해 160여 쪽 분량의 ‘군인권 가이드북’(167쪽)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북 목차는 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은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 도입후 많은 변화가 있던 바, 현재 공개상태는 아님).



2015.11.02. 군인권 토크 콘서트




2015.10.05.-07. / 10.06.-08. 군인권 캠페인


군인권가이드북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군인 권리 이야기

2015




군인권가이드북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동12나길 26
02-733-7119
mhrk119@gmail.com

본 가이드북은 다음카카오의 **map** 의양해*를 통해 보급된 시민의 성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군인권 보호구역

군인권센터는 2014년 故 윤일병 사망 사건 이후 군인의 권리가 유린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고, 다음카카오 '희명해'를 통해 모인 시민의 성원으로 이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켜지지 않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불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대에 가지만 군필들도 사실은 군을 잘 모릅니다. 워낙 임시변통으로 일처리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조직원이 65명이나 되는 만큼 큰 규모의 조직이고, 그 운영의 실제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가 발견됩니다. 흔히들 '케바케'라고 하죠. 부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으로서, 군인 공무원으로서 몇몇 원리와 원칙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 많고, 이 때문에 많은 군의 부조리와 약탈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다."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부대 관습' 또는 '전통'이라는 관성에 한 개인으로서의 맞서기가 매우 힘듭니다. 군인으로서 여러분은,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병으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병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계급이 올라갈수록 군의 부조리에 익숙해지고

12


군인에게 존엄을!

40. 군대 제설과 제초는 얼마나 힘든가요?

몸을 써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힘들습니다. 제설과 제초 모두 원래 목적은 모두 임무 수행을 원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제설작전 외 사역은 보통 어떤 목적을 위해 인원이 차출된 일을 말하며 제초, 제설, 진지공사 등이 대표적이지만 부대 환경미화, 대민 지원 등도 모두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는 본 업무보다도 사역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일과 이후에도 사역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것입니다. 특히나 그 이유가 '높은 사람의 방문'이 많아 문제입니다. 또는 작전 혹은 작열 마무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말과 일과 시간 이후에 병력을 동원하여 일을 끝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지공사

각 부대의 방어선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각종시설을 신속 또는 보수합니다. 약 2주간 진행되며 방어선을 따라 구덩이를 파고 그 사이에 걸어 다닐 수 있게 깊이 120cm, 폭 60cm 정도의 '이동통로(길)'를 만드는 일입니다.

97

군인권가이드북

[제6장 원님재판]

더는 못 참아!

63. 군대에서 부조리, 성폭력, 폭행, 체벌, 따돌림 등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선 군 내부 절차를 이용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말단은 지휘계통을 이용해 상관이거나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부대의 감찰이나 군경찰 또는 헌병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있으며, 국방헬프콜로 상담관과 상담을 하거나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모두 신분의 노출로 인해 후속 피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알의 방법들로 신고하기가 부담되거나 걱정된다면 군인권센터(02-733-7119)로 연락주세요. 특히나 형사범죄의 경우 적절한 법률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130

가이드북 목 차

관계자의 출입금지
군인권보호구역

10
12

제1장 반갑지 않은 초대

祝합격! 군대고시

- 1 '영장'이 날라 오면 바로 입대하나요? 21
- 2 징병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2
- 3 군대 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23
- 4 징병검사 이후 병이 생기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23

K2, M16 어떤 총으로 사갈까?

- 5 군대에는 휴대전화말고도 금지된 것이 무엇인가요? 24
- 6 입대날 머리를 깎고 가야 하나요? 라식, 라섹에 제한이 있다던데요? 28
- 7 입소식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

눈물의 입영열차에 몸을 싣고...

- 8 입대직후에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수 없나요? 31
- 9 병역거부를 해도 군복무는 해야 한다던데? 33

제2장 어색한 짹짹머리

아프니까 훈련병이다

- 10 훈련중 부상을 당하면 집으로 쫓겨나나요? 35
- 11 훈련소 기간중 평가점수가 군생활에서 중요한가요? 37

육군, 강한친구!

해군, 대한민국의 힘!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해병대, 귀신잡는 해병!

원손파지? 직각보행?

- 12 훈련병시기에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44
- 13 군대에서는 종교활동에 꼭 참여해야만 하는가? 45

공포의 빨간모자, 조교

- 14 조교들이 '열차려'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인가요? 46

제3장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서 와, 군대는 처음이지?

- 15 군대에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하나요? 49
- 16 선임이 시키는 심부름은 모두 해야 하는 것인가요? 50

2박3일이 2.3초가 되는 기적

- 17 외출, 외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51
- 18 군인은 휴가를 어떻게 받나요? 53
- 19 병사휴가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57
- 20 나의 휴가·외박등 특전이 제한될 수 있나요? 62
- 21 '위수지역'은 무엇인가요? 병사도 꼭 지켜야 하나요? 63

그리운 얼굴들

- 22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면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64
- 23 군대에서 면회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66

말년병장과 이등별

- 24 병사는 부대내에서 음주, 흡연을 할 수 없나요? 67

25	복지매장(PX, BX)는 아무때나 갈 수 있는 것인가?	68
아프냐? 나도 아프다		
26	소위 관심병사, “배려병사”는 무엇인가요? 배려병사에게는 불이익이 있나요?	69
27	군대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많은데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0
28	‘그린캠프’, ‘비전캠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전역후에도 기록이 남나요?	71
29	일명 ‘고문관’, ‘찢빠’, ‘사이드’, ‘뺑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계속 참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73
30	군복무중 고충이 생기면 어찌죠?	73
까라면 까!		
31	선임이 집합이나 기합을 줄 수 있나?	81
32	선임이 후임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나요?	83
33	병영생활자치제도가 무엇인가요?	86
34	가감점 제도란 무엇인가요?	87
맞아야 정신차린다?!		
35	군대에 가면 진짜로 자주 맞나요?	88
36	신병으로 가면 장기자랑을 해야 하나요?	93
37	휴가복귀때 선임들 선물을 사서 들어가야 하나요?	97
책읽는 군인, 샅질군대		
38	요즘은 군대에서 수능공부도 할 수 있나요?	97
39	군인은 주5일제를 실시하나요?	101
40	군대 제설과 제초는 얼마나 힘든가요?	102
41	군대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나 훈련말고도 ‘OO군무’가 있던데 무엇인가요?	103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다		
42	부대로 오는 편지를 검사하기도 하나요?	105
43	선임이 자꾸 첫 사랑이야기를 말하라고 하는데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44	군대에서는 내 소지품을 불시에 검사하나요?	106
비누가 떨어졌다		
45	동성애자인데 이를 부대에 알려야 하나요?	107
46	부대원중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0
47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던데 사실인가요?	111
통신보안		
48	군부대주소,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하는데 군대무용담도 기밀 누설인가요?	113
49	군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나요?	115
쿠테타의 추억		
50	군인은 집회, 시위에 참가가 금지되고 정당가입이나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나요?	115
저녁있는 삶		
51	군대에서는 언제 설 수 있나요?	118
떡여주고 재워주는 군대		
52	군대에서는 칫솔, 손톱깎이, 팬티에 양말까지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121
53	학자금대출이자를 군복무중에도 내야 하나요?	122
제4장 말못할 고통		

54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23
55	성추행이나 성폭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성희롱침해를 받았는데 끝까지 참아야 하나요?	124
56	복무중에 병사간에도 성폭행이 발생하는가? 성폭력 가해자들은 동성애자들 아닌가?	125
57	부대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영창 보내면 충분하다는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6
58	군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어 소송중인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127

제5장 네 죄를 내가 알렸다

59	군대에서 잘못하면 무조건 영창을 가나요?	130
60	내가 잘못된 일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135
6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36
62	군대에서 영창 가거나 구속 당한다면,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나요?	137

제6장 원님재판

더는 못 참아!

63	군대에서 부조리, 성폭력, 폭행, 체벌, 따돌림등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39
64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141
65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부대내에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신고가 망설여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2
67	인권침해 가해자가 전역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3
68	전역을 하면 복무중에 일어났던 사건처리결과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143

헌병이 잡아간다

69	군에서는 헌병대가 경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헌병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144
70	법무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45
71	헌병이 '군기카드'를 끊는다는데 무엇인가요?	146
72	영창을 가고 형사처벌도 받으면 이중처벌이 돼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요?	146

후덜덜한 군사재판

73	군인이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148
74	군인은 군법에 따라 범죄를 지어도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는데 얼마나 무겁나요?	149
75	복무중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49

제7장 만병통치 빨간약

아프면 죄인

76	군대에서는 아프다고 말하면 피병으로 취급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150
77	입대전 치료받던 병원이 있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1

총상수술을 못하는 군병원

78	군병원의료시설이 낙후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153
79	전방부대에 가면 제대로된 치료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군의관 수와 군병원의 수는 적절한가요?	154
80	부대 의무대 군의관보다 군병원 군의관의 임상경험이 더 풍부할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155
81	군병원에서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156
82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며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보내줬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157

상이군인

- 83 복무중에 다치거나 적응장애가 와서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0
- 84 복무중에 다쳐서 치료하던 중에 전역하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162

제8장 이제는 국가차례

부를 땀 언제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 85 경제적 혹은 건강상 이유로 군복무를 더 이상하기 힘듭니다. 전역하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163
- 86 의병전역(의가사)이나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되면 취업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은 없는가? 164
- 87 공익(사회복무요원)등으로 복무전환이 되면 남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65

상처뿐인 군생활

- 88 전역후에도 남은 장애(혹은 질병)가 있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65

함께한 사람들 172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수상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인들의 인권 옹호활동을 인정받아 2014.12.0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같은 해 본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으로부터 각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시작으로 군인권 운동까지 지난 18년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이자 초심 잃지 말라고 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 한편에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축소 은폐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치시대 히틀러가 부활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이기도 한 저에게 인권상을 수상기로 결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보면서 기독교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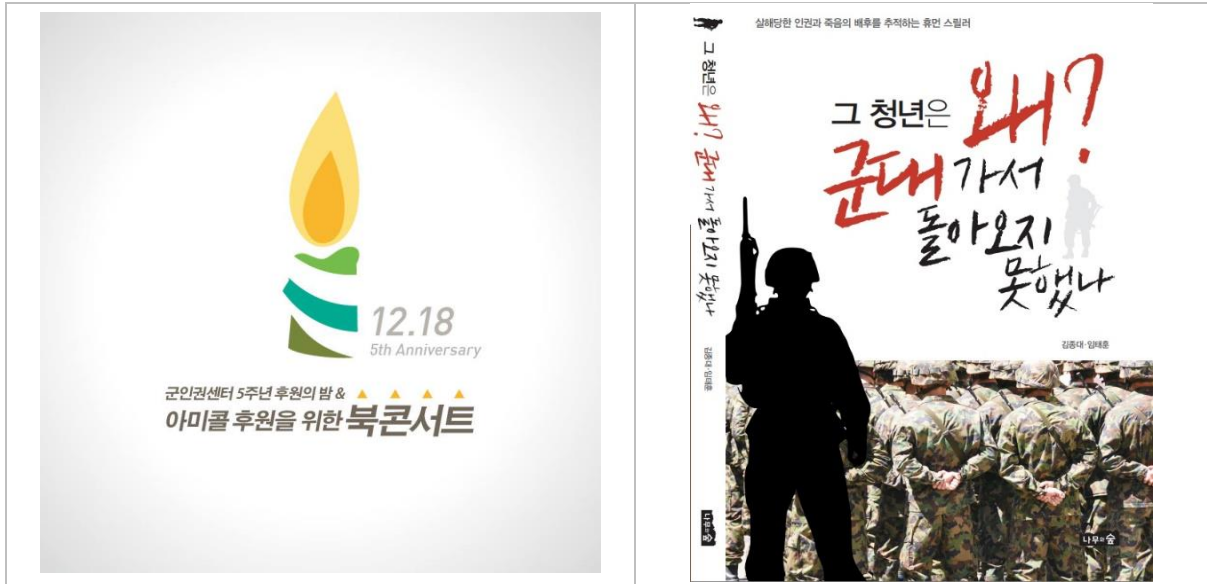
이 상은 저 한사람의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로 유명을 달리한故 노우빈 훈련병,故 이재연 훈련병,故 정희택 훈련병,故 최형호 이병,故 김범수 일병,故 신성민 상병,故 오혜란 대위,故 윤승주 일병,故 김태양 상병과 지금도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유가족들 그리고 차별과 편견 때문에 삶을 스스로 마감한 동생 오세인, 육우당과 차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무명의 LGBT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과 특히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 군인권센터 운영위원들과 김숙경 사무국장님, 사무국 활동가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부모님과 그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차별을 선동하고 공청회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인권헌장 폐기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청사에서 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을 지지합니다.

4) 2014년 군인권센터 5주년 후원의밤 &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군인권센터는 2014.12.18.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창립 1주년을 기념한 미술 전시회 이후 약 4년만에 가진 후원행사였습니다. 당시 임태훈 소장은 김종대 편집장과 대담집을 간행하였고, 5주년 기념에 맞춰 북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꾸렸습니다.



<p>김종대 편집장과 임태훈 소장의 대담집,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발간 북콘서트</p> <p>군인권센터 5주년 기념, 아미콜 후원을 위한 행사입니다. 책 판매 수익의 일부는 군인권센터에 기부되었습니다.</p>	<p>프로그램 소개</p> <p>19:00-19:30 저자 사인회와 간단한 식사 19:30-21:00 북콘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영화배우 권해효 - 기조강연 : 조 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초청가수 : 윤영배 - 고문 위촉장 수여 및 5년지기 회원 시상 - 저자와의 대화
--	--

5) 의무경찰 집회투입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감시단 운동



군인권센터는 민중총궐기가 진행되던 2015년 연말 당시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경찰사무의 보조인력으로서 투입되어야 할 의무경찰대원에게 집회시위 현장 전면에서 시민들과 대항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도 보장하는 적극적 형태의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부득이 제한할 때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비숙련·비전문 요원인 의무경찰로 하여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기어 시민과 시민을 싸움을 붙여 왔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⁸

⁸ 헌법재판소는 1995.12.08. 91헌마80 결정에서 위헌 4로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시위진압명령이 합헌이라 결

이번 헌법소원인단에는 김지형 前 대법관, 전수안 前 대법관, 문경란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강자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영애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임대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법학 교수 등이 고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군인권센터는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 투입 실태를 감시하고자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에서 경찰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다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11.11.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7.06.22. 16진정0927700에 대하여 인용결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래의 의무경찰의 임무에 맞게 의무경찰 대원 운용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2018.02.06. 경찰관을 우선 배치하여 의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2018.02.06. 보도 (2016.12 촬영)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보고

후원금

군인권센터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공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센터의 재정은 2014년 故 윤 일병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업 및 모금이 진행되어 그 해의 경우 특별히 큰 재정규모를 보였습니다.

1) 원불교 재비모금액 기금전달식

원불교는 100주년 사업으로 여러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재비모금을 하였습니다. 그 모금액 중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군인권센터에 기부해 주셨습니다(10,000천원). 소중한 모금액을 국군장병을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기금전달식에서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문을 보신 정상덕 교무님께서는(원불교 100년 성업회 사무총장,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보너스나 상여금도 없이 적은 월급에 고생하는 군인권센터 상근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군장병을 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근자들의 복지가 튼튼해야 국군장병들을 위해 좋은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뜻깊게 모아주신 재비를 국군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군인권센터에 큰 기부를 해주신 원불교와 재비 후원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군장병들의 든든한 인권지킴이로 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진 오른쪽부터 故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 운영위원, 원불교 정상덕 교무, 임태훈 소장, 김인숙 운영위원장)

2) 온라인 기부

군인권센터에는 또한 여러 단기 기부자 분들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2014년에만 13,887명의 누리꾼 여러분께서 16,440,493원을 모금하여 군인권 옹호 활동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먼저 네이버 해피빈 후원으로 지난 3년 간 총 2,394분께서 3,600,800원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2014년에는 故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여러 누리꾼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셨고, 2015년 10월 16일에는 슈퍼주니어 콩저금통 관리자가 동해, 은혁 씨의 군입대를 계기로 507,000원을 “나라를 위해 뛰는 군인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려며 기부해 주셨습니다.

2013			2014			2015		
1,075,700원 (1,464명)			1,356,600원 (663명)			1,168,500원 (267명)		
기부함	기부총액	기부자	기부함	기부총액	기부자	기부함	기부총액	기부자
기본	75,700	30	기본	1,035,000	320	기본	1,168,500	267
자살 예방	1,000,000	1,434	성폭력 상담소	321,600	343			

다음카카오 “희망해”

그리고 다음카카오 ‘희망해’ 후원으로 2014년 12,224명께서 15,083,893원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기부제안	모금기간	기부총액	기부자
오 대령 성추행 피해자 지원	2014.02.05.~2014.03.04.	1,623,500원	3,133명
故 윤 일병 사망사건 지원	2014.10.16.~2015.01.15.	13,460,293원	9,091명



센터는 2015년에도 다음카카오 ‘희망해’를 통해 2개의 모금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전방지역 북한이 설치한 대인 목함지뢰 폭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하사 두 명에 대한 치료비 모금을 9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뒤늦게 치료비 전액을 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모금 사유가 소멸하여 중단했습니다. 529명의 누리꾼들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공군 하사 집단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군 전문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위한 모금을 추진하여 751명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나 사단법인 시민의 심의에 따라 사업내용(신규 사무소 설치 등)이 다음카카오 희망해가 지원할 수 없는 분야에 해당하여 ‘미선정’ 되었기에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희망해 “故 윤 일병 사망사건 지원” 모금글

아미콜(ARMYCALL)의 개설과 운영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윤 일병의 짧은 삶은 집단구타로 인한 참혹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접수된 구타가혹행위 사건은 그 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온 군 인권 전문가들조차도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 및 뒤이어 확보한 수사기록들을 보면서 그 참혹한 내용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 일병은 그러한 끔찍한 폭력을 당하는 동안 부모님에게도 지휘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이야기 할 곳이 없었다는 것에 윤 일병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잊혀 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윤 일병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결코 또 다른 윤 일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말합니다. “잊히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잊혀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추모제에서 제 2, 제 3의 윤 일병이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고 윤 일병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타가혹행위 상담을 받아온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모금에 나섰습니다. 윤 일병이 이야기할 곳이 있었다면, 군인권센터가 좀 더 군대를 잘 감시할 수 있었다면, 윤 일병의 처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수사와 재판에 좀 더 일찍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감시했다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군 사건사고를 은폐하려는 군은 아미콜 개설과 군장병의 이용을 막으려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으로 ‘군인권센터 전화상담원 양성기초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군인의 전화 아미콜(ARMYCALL) 개설을 목표로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즈음하여 군에서는 아미콜을 이용하는 장병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아미콜(ARMYCALL)이란 단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미콜을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장병들에게 상기시킬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되는 상담전화를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동안 해병대 성폭력 사건, 6사단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건, 훈련소 뇌수막염 사망사건,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 대위 사건 등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현재도 모두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건들을 다루느라 실무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반납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건들을 지원하기에는 인원도 재원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구타가혹행위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윤 일병들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인권 상담전화인 아미콜(ARMYCALL)의 운영이 시급합니다. 군 인권문제 전문 상담원을 더 양성하고, 더 많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상담전화를 알리는 데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미콜은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 진로권 문제, 유공자처리 문제 등 군 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상담과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센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군에 무관심했던 우리에게 죽음으로 말을 건네 온 윤 일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2, 제 3 의 윤 일병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모금액 집행 계획

1. 아미콜 상담원 양성 사업 비용

- 지난 6 월 군인권센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으로 아미콜 전화상담원 양성 기초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인 아미콜의 운영에 앞서 기초과정을 수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전국 단위 군인권피해 감시단 모집 비용

- 아미콜 전화번호와 아미콜 이용방법이 담겨있는 군인권카드를 배포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군인권피해 감시단 모집할 예정입니다.

3. 군인권피해 대응 가이드북 및 군인권카드 제작/배포 사업 비용

1) 군인권피해 대응 가이드북 제작 및 온라인 배포

2) 군인권카드 제작 및 카드 배포 활동

육군 논산훈련소, 의정부 306 보충대, 춘천 102 보충대, 진해 해군훈련소, 진주 공군훈련소
육군 주 1 회 3 지역, 해군/공군 월 1 회 각 1 지역 / 회당 투입인원 5명 예상



연례 보고서